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일시 2023. 11. 30.(목) 14:00~18:00

장소 성남 밀리토피아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CONTENTS

1. 2023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연구 결과

- ①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학부모교육 정책 개발) 3
- ②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방안(학부모 역량 개발) 30
- ③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조직(학부모 교육참여) 49

2.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 ① 유치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달빛유치원) 87
- ②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용인백현초등학교) 95
- ③ 중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보평중학교) 100
- ④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화성나래학교) 106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개요

- (주제)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 (일시) 2023. 11. 30.(목) 14:00~18:00
- (장소) 성남 밀리토피아
- (참석) 경기도 관내 교원, 학부모,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200명 내외
- (일정)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3:50	등록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5:00 (50분)	Session1 부모와 자녀의 미래를 여는 동행 - 2023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연구 결과 발표 ①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학부모교육 정책 개발) ②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방안(학부모 역량 개발) ③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조직(학부모 교육참여)	분과별 15분 내외
15:00~15:10	휴식	
15:10~16:40 (90분)	Session2 함께 할수록 빛나는 동행 -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나눔 ① 유치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달빛유치원) ②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용인백현초등학교) ③ 중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보평중학교) ④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화성나래학교)	기관별 10분 내외
16:40~17:50 (70분)	Session3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동행 - 관리자,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통·공감 워크숍 ① 교육공동체 간 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 ② 내가 제안하는 교육공동체의 약속 ③ 우리가 제안하는 교육공동체의 약속	퍼실리테이션
17:50~18:00	폐회	

제1장

2023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연구 결과

- ①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학부모교육 정책 개발)
- ②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방안(학부모 역량 개발)
- ③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조직(학부모 교육참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1팀¹⁾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인성의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 사회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소통하는 학부모의 역할은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

다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학교 교육도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 교육 전반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교권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주(2018)는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영향 요인 중 학생·학부모 관련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가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경리(2019)는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 대학생의 중등학교 경험을 토대로 교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권은 교사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의 균형(balance)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적 권위로 나타났으며,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의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자기와 자아, 마음과 몸, 개인과 공동체, 나와 지구, 지식의 다양한 분야 영역의 연계(connection)의 단절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 침해의 해결 방안으로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존중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을 밝혔다.

2023년, 올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세 여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의 젊은 남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 이상철(성남장안초), 이서영(안양해오름초), 김승열(용호중) 학부모: 김순연(교잔고), 최주미(갈매초)

반복적인 연락과 민원으로 고통스러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고발된 사례는 1,252건, 최근 4년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사는 1,000명 이상이며, 한국교총이 23년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과 학생 간 활력있는 소통과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학부모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예비 교사들까지도 교직에 대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 모두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에 대한 신뢰감 저하와 소통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부모는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해외의 교육계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양한 법률안이나 제도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학부모 학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협력자 혹은 적극적 참여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합한 생애 발달 주기별 학부모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내 학부모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학부모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여 학부모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 전문가들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 내 학부모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교육적 가치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방안을 조사한다.

셋째, 학부모교육의 의미와 방향, 교육 전문가들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방안에 대한 의견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협력하여 지원하는 배움의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내 학부모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학부모교육 관련 향후 연구를 진행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조사

- 최근 10년간 실행된 학부모교육 관련 연구 문헌 분석
- 시기: 2023. 5월~6월

나. 델파이 조사

- 학부모교육에 관한 현황, 문제점, 인식 및 제도화 방안 의견 조사
- 대상 : 전문가 10인 (교직 경험 20년 이상 교수, 관리직, 전문직)
- 시기: 2023. 7월~8월

II 선행연구 분석

학부모교육은 부모 교육, 평생교육,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의 참여 교육의 교집합적 성격을 지닌다(서현석, 2014). 이러한 성격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화 및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교육과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을 위한 학부모교육이 혼용되어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주체화 및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교육 연구와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을 위한 학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교육주체화 및 학교 참여

류방란 외(2015)가 수행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소외되는 학부모들 없이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휴가제 검토, 교육부의 타 부처 및 정책과의 연계, 소통의 개방성 제고 등이다.

이선영 외(2019)는 “학교 자치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교육 참여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학부모교육 참여 양상, 교육청 업무계획, 학부모교육 참여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 및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 학교와 학부모 간 개방적 의사소통 통로 마련, 생애주기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현장의 행정적 지원 활성화 및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소미영 외(2019)는 “학부모교육 주체화를 위한 연수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학부모 역량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학부모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연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의 요구와 학부모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한 연수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 주체로서의 자치 역량과 실천력 제고를 지향하고, 교직원과 함께하는 연수 등 연수 방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오재길 외(2016)는 "학부모교육주체화 방안 연구"를 통해 학부모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 참여 휴가제 도입, 학부모 지위 향상 특별법 제정, '학부모의 날' 지정 및 운영, 교육청 지원 체계 정비, 학부모 친화적 단위학교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 자녀 교육과 성장 지원 역량을 위한 학부모교육

김기수(2023)는 "생애주기별 부모(보호자) 교육과정 개발"에서 부모(보호자) 역할의 변화 주기에 맞추어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부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2021)의 연장선상에서 실질적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초기의 7개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주기별 교육 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교수 요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간과 시설 지원 및 학부모지원센터 내실화 등의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부모(학부모) 교육의 제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성을 느껴온 것으로, 이미 2013년 학부모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서현석,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해외의 부모교육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의 부모교육 효과에 주목하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김소영 외, 2016)"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이미화 외(2015)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은영 외(2015)는 "초중고 학부모의 학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사업 참여교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교육 시간의 다양화 및 우수 강사의 확보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으로 학부모교육이 활용되는 두 가지의 맥락인 '교육주체화 및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교육과 '자녀 교육과 성장 지원 역량'을 위한 학부모교육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 주체화와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10년 이상 여러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근래로 올수록 분석과 제안이 정치해지고 현장 적용 적합성도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학부모에게 교육 주체로서의 역량을 신장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자가 공통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도 일정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체별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소외 학부모 최소화, 정책과의 연계, 인적·물적 교육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행정 지원 활성화 등의 제언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같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달리 보면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볼 여지가 있다.

3. 학부모교육 관련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녀 교육의 의무가 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교육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도 학부모교육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18대 국회 2회, 19대 국회 3회, 20대 국회 1회, 21대 국회 3회 등)된 바 있으나 현재까진 모두 폐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부모 관련 조례는 다수 있다. 학부모회 관련 14개, 학부모교육 관련 8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관련 조례는 3개의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은 현재 2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 개발」, 김기수 외, 2023).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 실시의 의무를 갖고 있으나 학부모에게는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4. 해외 학부모교육 사례

가. 일본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지역의 육아 경험자와 지역전문가, 아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가정교육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과의 의사소통 및 학습 기회에서 소외된 학부모와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신문』 2016.3.28.) 일본의 학부모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연계된 사회교육단체인 ‘교사-학부모협의회’(PTA)를 통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이 단체의 주요 목표가 ① 충실한 가정교육, ② 등교 거부, 아동학대 방지 등 교육 사회 환경의 정비,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해환경 정화 ④ 평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민 육성 등임. 이를 추구하기 위해 보호자(학부모)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연구 및 학습을 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론 조성 및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2018 학부모교육 백서).

나. 독일

독일은 사회복지법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사회복지법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Achtes Buch Sozialgesetzbuch-Kinder-und Jugendhilfegesetz)
제16조: 가정 내 교육 지원
1항 부모, 법적대리인과 청소년들은 가정 내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개별 상담과 주제별 워크숍을 통한 교육이다. 이 중 개별 상담은 각 주나 권역별로 있는 청소년청(Jugendamt)에서 주로 담당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 및 문제상황에 대해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청은 2021년 현재 독일 전역에 559개가 있으며, 유치원 신청부터 베이비시터 지원, 아동폭력문제, 양육 상담, 입양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 주제별 워크숍 또한 청소년청에서 민간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발성과 협력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독일한국교육원 독일 교육정보, 2021.07.15.)

다. 프랑스

프랑스는 19세기 말부터 민간 주도로 학부모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학부모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학부모 교육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관련 지식의 심화,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교육의 지원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관련 지식 심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강연, 강의, 출판, 시청각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학부모교육 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발달시켜 왔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주로 상담을 활용했는데, 편지상담을 시작으로 하여 면대면,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 법률, 심리,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개별 내담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학부모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책적 특색』, 전제상, 2020)

라. 미국

미국의 학부모교육은 크게 부모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의 학교생활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특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인인 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식과 육아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생활 및 진로 교육은 학교생활 지원, 진로 및 진학 관련 정보 등 실질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문화 배경의 학부모를 위해 영어 외에 스페인어로도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인쇄자료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 영어교실, 고교학력자격시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지도하고자 하는 학부모 등을 위해 교육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시간주를 위시한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학부모교육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8 학부모교육백서)

마.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Youth and Family Centre’를 2.5km마다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이 센터들이 가족 모니터링과 함께 부모 지원 및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Home Start Amsterdam’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가정방문을 하여 부모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 자원봉사자는 11개월간 매주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며 교육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의 부모교육’, 서울연구원, 2014.10.15.)

이상으로 학부모교육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검토한 바에 기초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지원이 선결되어야 학부모교육 참여 휴가제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교육의 시간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 교육, 단기 특강과 장기 교류 학습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방식을 고안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학교 참여, 소통, 진로 및 진학 지원, 기본생활습관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고려한 교육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 전문가 10명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으로는 교육경력 20년 이상, 교육 분야 박사 학위 취득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교수 2인, 교장 1인, 교감 4인, 교육전문직 3인으로 총 10명이며, 각 전문가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배경

	소속	직위	교육경력	학력
김○○	○○대학교	교수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홍○○	○○초등학교	교감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황○○	○○중학교	교감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김○○	○○초등학교	교감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김○○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송○○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류○○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오○○	○○초등학교	교장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김○○	○○고등학교	교감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이○○	○○대학교	교수	20년 이상	교육학박사

2. 델파이 문항 개발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학부모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등 인식을 조사하고 학부모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델파이조사는 총 1회 실시하였고, 각 문항은 개방형으로 총 10개로 구성하였다. 개발한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델파이 조사 문항

번호	요소	문항
1	학부모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현재 학부모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학부모교육 의무화 ·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학부모교육의 교육내용	학교 내 학부모교육을 제도화한다면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부모교육의 교육 방법	학부모교육을 의무화 · 제도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좌 학점제 운영, 학부모교육 참여 수당 지급 등)
5	학부모교육 주체들의 역할	학부모교육이 제도화된다면 학교(교장, 담당선생님 등)와 학부모 각 교육주체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부모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학부모교육의 참여 유도 방안	학부모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	강사진 구성 및 운영방식	학부모교육이 체계화된다면, 강사진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교권 확립을 위한 학부모교육 방안	교권 침해 관련하여 학부모 교육에서 반영해야 할 내용이나 제도화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외국의 선진 사례 소개	외국의 사례, 또는 기타 다른 제도에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10	기타 자유로운 의견	학부모교육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IV 연구 결과

1. 학부모교육 현황

가. 학부모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현행 학부모교육의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학부모교육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화, 제도화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강제성을 띤 의무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부모를 교육받는 객체로서의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교육 제도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한계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법령) 및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철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연수들이 단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부모교육의 주제도 사회적 이슈에 휩쓸려 학폭 예방, 교원평가, 아동학대 등 우후죽순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요한 교육적 이슈는 뒤로한 채 에듀테크, 미래교육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인기 영합적인 학부모교육이 특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지원청)의 학부모교육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채 소수인력(6명)으로 운영되며, 평생교육과와 소속 직속 기관의 업무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의 역사가 부재하고 제도화도 되어있지 않아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교육 참여가 출발점이 되어 지속되어 온 역사 속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지원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역사는 거의 전무하며 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폐쇄성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참여의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게 했다.

현재 학부모교육은 정식 교육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현황이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학부모교육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 이○○〉

학부모가 학교 학교교육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없다. 또한 학부모교육의 경우 해당 부서의 **일회적 행사가 주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안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이 체계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운영 방법 등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감 김○○〉

셋째, 다수의 전문가는 학부모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교육이 의무교육 또는 필수교육, 또는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책무성을 갖게 하지 못하였으며 학교교육 활동에의 참여 저조로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형식주의와 집체주의, 양적주의, 비주체화의 한계가 있다. 학부모교육의 질이 높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의 필요를 생애주기별로 맞추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교육은 공포마케팅을 쓰면서, 공교육의 가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학부모의 필요는 학부모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조직화, 외재화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도 관련 전문가가 없다. 이처럼 **철학, 방법, 내용, 주체 등의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최근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다.** 학부모 교육 의무화,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불이익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심각한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스템은 가능하리라 본다. 〈교수 김○○〉

학부모는 학생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예비군 훈련처럼 강제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정작 교육받아야 할 학부모가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의무화, 제도화는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교장 오○○〉

학부모 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학부모의 쓸림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참여 대상의 한계가 있다. 열심히 참여하는 학부모와 그렇지 못하는 학부모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연구사 류○○〉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 학부모의 교육적 가치 추구를 위한 자발적 참여 역사의 부재, 문화적으로 교육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다는 점, 일회성 연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부모 연수의 주제도 매우 지엽적이어서 입시나 학력 등으로 편향되어 있어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방향이 일관되지 않게 가고 있는 점 등 제도화에 대한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학부모교육의 제도화는 꼭 필요하며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으로 모아졌다.

나. 제도화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학부모교육 제도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10인이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희망자 대상 학부모 교육은 실시할 수 있으나, 의무화는 사회 각 분야 제도(자녀 출생신고, 입학시 4시간 이상 의무 수강제 등)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인센티브(학부모학습 휴가제, 자녀방문 휴가, 주차비 할인, 지역문화상품권 지급 등)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공감대 형성,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부모교육을 단순 의무교육으로 강제하기만 하기보다는 학부모교육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지역화폐, 상품권 등) 방안이 병행된다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교수 이○○〉

학부모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의무화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부모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시간, 학부모 건강, 기타) 경우가 있고, 학부모가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일 때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부모교육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운영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교감 김○○〉

학부모교육 제도화는 **학부모의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부모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학부모 교육 내용을 수렴**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장 오○○〉

가정 내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연구사 송○○〉

2.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가.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차적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현재는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을 교육기본법(13조),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교육 근거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청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역할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접근이 아닌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초안을 만들어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해줄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 연수원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감 홍○○>

현재 **평생교육과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보다 분명하게 학부모교육 실시 근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학부모참여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학부모 교육참여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감 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진다. 맞벌이 가정이 점차 많아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운영형태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무화, 제도화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및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을 정비하여 회사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휴가제도**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학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은 학부모교육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지원(하루치 월급)과 휴가제도(공식적인 연차제도)**를 제정하여 누구나 경제적 손실이나 불편 없이 학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연구사 류○○>

다수의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보전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직장에서도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인식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안으로 학부모 참여 휴가제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보전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시로 있는 **학부모교육 참여 수당 지급**은 기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워져, 혹은 맞벌이라 참여를 못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도화를 생각한다면 **'학부모교육 휴가제도'와 '학부모교육 참여 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연구사 류○○>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부모가 참여를 해야 할 때 **직장 눈치를 보게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제 권리로 자리 잡은 것처럼, **자녀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봉사 등에 관해서는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적극 보장해주는 학부모 참여 휴가제**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 김○○>

또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다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비롯하여 학부모 공개 수업 등 각종 학교 교육 활동 참관 기회 부여를 제안하였다.

교원 연수 시스템과 같이 학부모가 가능한 시간에 학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원격교육 시스템 제공이 필요하다. <교육연구사 송○○>

교육 이수 후 학부모 공개 수업 등 각종 학교 교육 활동 참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감 황○○>

나. 학부모교육 내용 구성

(1) 바른 인성과 기초 역량 함양이 교육의 목적임을 인식하게 하기

학부모교육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하고 돌볼 수 있는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바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야만 그 교육의 효과가 커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사회적 공감감이 필요하며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많은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교육연구사 류○○>

(2) 올바른 자녀 양육 및 배움의 장소, 학교라는 인식 갖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정교육(학부모) 학교교육(교원)이 동반자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학부모교육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학교가 자녀가 성장하고 사회화하는 소중한 장소로서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다수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권, 교육의 본질, 인간에게 교육의 가치, 해외 교육의 좋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게 하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지평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주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동 인권의 원칙과 내용,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학교 자치, 교권의 필요성, 해외 교육 현황 등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학부모의 시각을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수 이○○>

명시적인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학생의 성장 관점에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감 김○○>

(3) 꼭 오고 싶게 만드는 학부모교육 운영 : 초·중·고 이해교육, 학부모-자녀소통 방안, 미디어교육, 성교육 등

학부모가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여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며, 그렇다면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만한 내용과 수준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의 없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풍부하고 전문가 식견에 기초한 정보, 최신 학생 성장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 좋은 교육 사례 공유 등 학부모교육 내용이 자녀 교육과 학교교육 활동의 이해, 학부모와의 소통의 기회를 열어준다면 학부모들은 반드시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양질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에서 핵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교육청 상황에 맞게 다채롭게 변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는 시도교육청의 한 연수기관을 학부모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교육도 교원 연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교공동체, 교육과정, 자녀 대화 및 상담 등이 가능할 텐데, 크게는 자녀와의 관계와 이해 및 진로, 학교 교육의 이해, 정책 사안(학교폭력, 고교학점제 등)으로 나누어 설계가 가능하리라 본다. <교수 김○○>

학부모 간의 갈등, 교원과의 갈등 등 갈등 해결 방안, 자녀의 진학, 진로지도, 학폭, 교권의 현황과 대안 모색 과정, 학교 자치, 학생 생활과 관련된 내용,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면 좋겠다. <교감 홍○○>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나 훈육하는 방법 등을 모르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몰라 학부모 자신이 경험한 방식대로 대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대화법을 몰라서 자녀의 발달에 적절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와의 대화법등이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연구사 송○○>

다. 학부모교육 운영방식

(1) 학부모 주도의 자발적 학습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영역별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학교별로 검증된 추천풀을 구성하여 학교 간 상호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강의 중심은 한계가 있으며, 학부모 학습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워크숍이나 실습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은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자칫 억지로 끌려온 예비군 훈련장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 - 종락 - 무엇보다 학부모 총회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수 김 ○○>

(2) 학부모 연수 의무 시간제

학부모교육은 초등학교 입학과 저학년군, 고학년군으로 새 학년군으로 옮길 때에는 학부모 연수 이수 의무 시간을 부여하되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참여 및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 학습해 나가도록 한다. 의무 연수로 실시할 경우, 학부모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청의 연수는 필수로, 학교에서의 연수는 자율 선택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 포함 새 학년군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연수 의무 시간**을 부여하며, 참여할 경우 참여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고학년에 따라 필요한 연수 시간 배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학부모교육 연수는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수 이○○>

학부모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학부모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녀의 발달 및 변화를 고려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온라인화를 통한 학부모의 시공간적 제약의 문턱을 낮추고 커뮤니티화로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부모교육 의무화와 제도화를 전제하기 이전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든지 진입장벽의 낮춤 등이 더 전제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자녀의 변화를 고려한 학부모교육이 필요한데, 적절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고, 학부모교육의 온라인화, 커뮤니티화 등이 필요하다. 학부모 총회 역시 야간에 열어야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교육 참여 수당은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 임원들이 학교활동을 할 때, 교통비나 회의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학부모 학습동아리나 커뮤니티 등을 형성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부모 주체화를 위한 예산 마중물이 필요하다. <교수 김○○>

기업의 학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유급 휴가의 제도화, 학부모 강사 요원 활용,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벽을 낮추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으로 이수한 학부모에게 지자체, 지역 사회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 동사무소, 지자체 부설 기관 등과 연계한 대면, 온라인 강좌 운영 이수 및 학점제 운영, 주민센터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용 쿠폰 등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안하였다.

동사무소, 지자체 부설 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면 강좌, 온라인 강좌 등을 동시에 운영을 구체화하고, 이수 후 피드백을 학점제 형태로 운영하거나 주민센터 등의 프로그램 활용 쿠폰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교감 김○○>

학부모교육 이수제를 도입할 경우, 필수 이수 시간은 30시간 이상, 시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시민교육 커리큘럼 구성, 교권 강화, 학폭 운영, 전학 등 각종 학생 관련 학교 행정 지원 시스템 이해, 지역 사회에 이해 위한 강좌 필요 등이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제안하였다.

3. 교육 주체 간 역할 및 지원 방식

가. 각 주체의 평등한 위상 설정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를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서 문제가 있거나 교육적 비전문가로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우선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주체 간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여 정교하게 정리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참여권, 요구권, 선택권 등이 있는데 각 세부 학부모 교육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 역할을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학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교장 오○○)

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구축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 학교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에는 학생 교육에도 버거운 개별 학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연수를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학교교육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등을 선발하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리더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학운위 역할, 교육과정위원회, 학부모 갈등 중재 등 **아카데미나 연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학부모회 임원 내지는 **리더들의 역할 제고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공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 등이 있는데, 이들을 잘 활용하여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마을 강사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수 김○○>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한다.

학부모교육이 제도화되고 학교 및 교육청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운영 체제에 대한 설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도화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 상담 프로그램, 교육과정 참여 프로그램 등을 연중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부모가 교육 참여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감 김○○>

지역, 학교 구분없이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부모교육의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 내용 주제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학부모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의 주제나 운영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연간 운영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연구사 송○○>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 홍보 및 정책 토론회를 운영한다.

지자체의 봉사활동 누적 점수제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권, 또는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할인 쿠폰 등 제공/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교육의 기회 제공**, 이수하지 못한 학부모의 환경, 여건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재설계 및 참여를 유도한다. <교감 김○○>

다. 학교의 역할

(1) 학교 관리자의 학부모 참여의 가치 인식과 소통의 마인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학부모 참여에 대한 개방적 · 소통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문가들 대다수가 제시하였다. 학부모들 대상의 연수의 필요성, 학교 내 학부모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관리자가 인식하고 학교 내 교사와 직원, 학교 밖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또한 담당 교사의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학교장이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학교장이 학교의 중책 리더로서의 책무와 동시에 권위를 인정하는 구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 등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학부모들 대상으로 연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강조와 설명을 위한 관리자 직접 설명회 운영 등 관리자는 단순 학교행정이 아닌 학부모연수의 가치와 중요성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교수 이○○>

학부모회 담당 교사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학부모회가 어느 순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학부모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학교장이 적극 지원해야 하고, 학부모의 요구와 건의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이 있었을 때,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교육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 <교수 김○○>

학교에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부모총회 등의 자리를 통해 학부모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자세히 안내하고, 담임교사도 운영 시기에 따라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교육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에게 필요하거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학부모교육 주제를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안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연구사 송○○>

(2) 학교-학부모 간 견제와 균형의 역할

학부모 민원이 없는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책무감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시스템의 관행(혹은 퇴행)적 운영 등 일부 부적 현상이 있다. 반면 민원이 많은 곳은 교권 침해 및 교육 활동의 개입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의 자율성을 제재받고 있다.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한 공론적 소통의 장으로서, 그러한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학부모수업 공개의 날 등 공식적 행사가 존재한다. 다만, 참관적인 자세로 매우 수동적 존재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식적 행사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교육적 가치나 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 공개 수업을 외국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예회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날이 공식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 수업의 날이 어떤 의미일지, 학생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학부모 참여가 바람직한지 등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깊이 따져 보아야 한다. 학부모 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학부모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교육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교육청(지원청)**은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및 제공,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요구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 학교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지원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과 교육에 대한 평가 운영, 예산 편성을 통한 학부모교육 수당 지급, 유튜브 방송, 언론 활용,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홍보 역할 등,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교육 수요 파악 교육청(지원청)과 연계 제공, 참여도 제고를 위해 가정통신문 및 연수 안내 등, **학부모**는 학부모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책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하며, **지자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각 기관과 협력적 시스템 구축(시청문화센터, 평생학습 센터, 도서관 등)으로 다양한 학부모교육 인증기관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한다.

4. 학부모교육 이수 방안

가. 인센티브 적용(90% 찬성)

학부모교육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패널티 적용을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의무와 권한은 연동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은 학부모의 의무이며 기타 활동에의 참여 기회 부여는 권한이자 권리임을 조례 등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7인의 전문가들이 강조하였다.

학부모교육은 의무적 제도로 진행하지만 인센티브 제공은 학부모교육이 정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패널티 부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지자체 복지제도(생활지원 등) 이용의 제한, 지방세 가산금 부여 등 (교수 이○○)

나. 패널티 적용(90% 찬성)

인센티브 방식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패널티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만약 학폭이나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학부모교육 미이수에 대한 패널티는 가능하겠으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미이수 패널티 정책은 여론에 민감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보았다. 패널티의 예시로, 각종 위원회 참여 등 활동 참여 기회 제한, 나이스 접근 권한 제한, 과태료 부과(교육청 차원), 특별 교육 실시, 지자체 복지제도 이용 제한, 지방세 가산금 부여, 휴가일수 차감, 청약 자녀점수 차감 등을 제안하였다.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곳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며, 민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 적극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임에 따라 나이스 접근 권한 제재 등 교육 정보 네트워크 참여 배제 등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을 제안하였다. 교권침해의 경우 학부모교육은 필수로 하며 미이수시 환경, 여건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5. 강사진 구성 및 운영방식

가. 강사진 구성 방안

학부모교육 강사진 인력풀 조성 과 강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지원(필수, 선택 과정)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중에는 학부모교육 리더 양성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각 학부모의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 리더를 양성 후 양성된 학부모 리더를 활용하도록 하며, 강사진은 교원 학부모 관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강사진에 대한 의견은 실무 경험을 지닌 현장 전문가여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강사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안하였다.

실무 경험을 지닌 현장 전문가(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시민, 교수, 상담가 등)로 구성한다.

학부모교육 체계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가 필수적이다.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위한 학문적 접근을 위하여 연구자와 학교 현장 전문가(관리자, 현장 교사 포함), 그리고 해외 교육의 긍정적 측면 반영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교수 이○○>

학부모교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관련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현장 전문가**(학부모, 지역사회 시민, 교수, 상담가 등)가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교감 김○○>

학부모 요원 50%, 교사 요원 30%, 그 외 기타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위원 20%의 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교육의 운영 방식은 연수원에서 기획하여 아카데미 과정, 석사과정 등으로 체계화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리더를 양성 후 양성된 학부모 리더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교감 홍○○>

일정기간 동안 각 학부모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리더를 양성 후 양성된 학부모리더를 활용하도록 하며, 강사진은 교원 학부모 관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감 김○○>

나. 운영 방식

연수 방식에 관하여, 대면 연수가 효과가 크겠지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주로 온라인 연수로 지원한다. 대면 연수 이수의 경우,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하며, 토론 실습-사적 수다, 협담 등 스몰 토크(small talk)에 익숙하지 않는-과 같은 소통 방식의 연수, 학습공동체 운영 방식, 인문학 독서 대화 모임 상시 운영을 통한 민주적 소통 훈련, 교사-학부모 간 인문학 독서 모임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각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담당자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부모교육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온라인에서 원클릭으로 신청하면 학교로 강사를 보내주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대면, 학습공동체 커뮤니티 운영(워크숍, 실습 등),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수 이○○〉

학부모 대학이나 아카데미 등을 통해 좋은 커리큘럼 강좌를 축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소감을 나누고 토의·토론을 하면서 실천 방안을 찾는 방식도 검토하면 좋겠다. 〈 교수 김○○〉

6. 교권 침해 관련 반영될 교육내용 및 방향

가. 교권 침해는 공동체의 정당한 공적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

현대 많은 학부모는 학교를 대학 입시를 위한 기관 또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철학이 거의 전무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권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 활동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형성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이 필요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당한 공적 활동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임을 사회 차원에서 인식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시험 봐서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철학이 없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체로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인성교육 등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다면 교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권은 교사를 위해서가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권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권 침해는 **궁극적으로 학습권 침해이고 공동체의 정당한 공적 활동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교수 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강제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되, 강제 연수는 체계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이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교권 침해 예방 연수, 학폭 연수 등은 전 학부모가 의무교육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감 홍○○〉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부모교육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되,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학부모 상담의 올바른 절차, 민원 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교육연구사 송○○〉

나. 학부모 민원의 단계화

전문가들은 학부모이 민원을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부모회에서 접수, 2단계에서는 학교공동체 회의(학부모회-교사회), 3단계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4단계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원보호위원회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한다. 법률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교육 00시간, 교육사회봉사 00시간, 과태료 부과 등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 소송으로 갈 경우, 무고, 명예훼손 등이 뒤따를 수 있음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학부모 민원을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 :학부모회에서 접수 2단계: 학교공동체 회의(학부모회-교사회) 3단계: 교권보호위원회 4단계: 교육지원청 교원보호위원회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함 〈교감 김○○〉

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

전문가들은 학교와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로서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부모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민원이 학부모회라는 공적 창구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교사회 내지는 교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적으로 모든 것으로 풀어가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풀어가려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른바 공공성과 공화주의 관점을 가지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아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아동관, 교육관, 교육과정을 둘러싼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 개인의 민원이 객관화되고 경험 많은 학부모의 조언에 의해 소통될 수 있는 채널과 시스템, 문화 구축이 중요하다. 결국, 학교는 관료주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관점, 불신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가 교권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될 것이다. 〈교수 김○○〉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의 행위 자체에 대한 연수보다는 **학부모의 성찰, 상담의 과정,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교감 김○○〉

이 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과 이후 시간 전화 및 문자 연락 금지, 급한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 연락 등 시스템 구축 필요, 형사 고발 사안 등 학교 연계 금지, 학폭으로 보복성 재처리 위한 학교 민원 시행 민원 접수 및 처리 일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에 대해 가해자는 법적 조치가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조치, 교권 침해에 따른 자기 자녀의 교육적 피해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교장 오○○)

법률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교육 00시간, 교육사회봉사, 과태료 부과 등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 소송으로 갈 경우 무고, 명예훼손 등이 뒤따를 수 있음을 교육하여야 한다. <교감 김○○>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부모교육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되,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학부모 상담의 올바른 절차, 민원 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교육연구사 송○○)

7. 외국 사례가 주는 학부모교육의 시사점

가. 학부모 공동 책무성 인식의 제고

전문가들의 외국 사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녀의 교육권을 학교에 위임한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자료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었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문제 행동이나 학습'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상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해외에서는 PTO(학부모교사연합회) 등을 구성하여 학교 입학과 동시에 가입하고 적절한 참여와 교육을 진행한다. 교권침해 사례도 학교나 교사가 1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교직원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아이(자식)를 교육시키는 교육권을 학교에 위임한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교수 이○○>

미국 PTA(parent-teacher association)로, 학부모-교사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감 김○○>

스웨덴에서는 학생을 위해 제도적으로 발달 대화를 명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시로 학부모나 교사의 요청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 요청한다고 한다. 발달 대화는 학생의 학습 목표, 학생의 자세, 교사의 도움, 가정의 협조 등을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가정이 함께 공유하고 학습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교사가 학기 말에 다시 대화를 요청한다고 한다. <교감 김○○>

나. 학부모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서약서 작성

외국에서는 입학할 당시에서부터 학부모로부터 서약서를 모두 받아서, 교권침해, 학폭, 학교 상대 소송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의 역할과 책무 및 책무 불이행 시 제재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사항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장 오○○>

상담 전문 교사, 학교 생활 적응 전담 교사, 학교 폭력 전담 교사 등 별도 전담 교사 배치 필요하다. <교감 황○○>

8. 기타 의견

가.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방향 설정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양상,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교권이 인식되고 학부모교육이 운영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0년간 사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폭력과 교권의 남용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을 축소하는 방식의 교권 확립 및 학부모교육이 아닌 바람직한 교육권과 학습권의 확립을 위한 교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 이○○>

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의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시민교육원 설치(가칭)’

전문가 중에는 지역별로 ‘학부모 시민교육원 설치(가칭)’가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학부모들이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부모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역별 “학부모 시민교육원 설치(가칭)”가 필요하며 이곳에서 학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제도화 할 필요, 기존 혁신학교에서 활동했던 학부모들이 교육 현안에 적극적인 학부모로 성장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 거점 학교로 운영되어도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구사 황○○>

다. 법적 근거 마련 필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필수-의무 연수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미없는 전시성 행정이면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 법률적인 방법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운영에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교감 김○○〉

학부모교육 의무화, 제도화라는 용어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어감**으로 들릴 수 있다. 긍정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교장 오○○〉

학부모교육을 학부모가 받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으로만 운영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교육연구사 송○○〉

V 결론 및 제언

최근 학교 내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 역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학부모지원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인식 개선, 학부모 교육 기부 지원,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 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정립을 하여 부모 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가정에서 학교,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교육과 참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학부모가 교육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하였다.

학부모는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협력자 혹은 적극적 참여자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교육'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합한 생애 발달 주기별 학부모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교육 전문가 집단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현행 학부모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형식적이고 비주체적이며 체계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부모교육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학부모교육의 제도화가 시행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방식, 교육 주체 간의 역할, 강사진의 구성, 많은 수의 학부모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의 이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정책 워킹그룹 운영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학부모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무화, 제도화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강제성을 띤 의무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차적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의무화는 사회 각 분야 제도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인센티브 방법과 연계된 학부모학습 휴가제, 주차비 할인, 지역문화상품권 지급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고려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가들이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인 내용으로, 아동 발달 이해, 부모 역할, 자녀와 대화법, 학교 교육의 이해, 자녀의 인성교육, 자녀의 진로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전환기 교육, 나눔과 배려, 책임교육 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수기관은 학부모가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여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렇다면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여 할 것이다. 양질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에서 핵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교육청 상황에 맞게 다채롭게 변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는 시도교육청의 한 연수기관을 학부모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교육도 교원 연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교육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의무 연수로 실시할 경우, 학부모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교육 주체 간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교육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학부모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조화로운 협력체계를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도단위 컨트롤 타워보다는 지역과 연계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연수가 진행 되어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받은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이끌어가도록 정책 방향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 교육에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학교의 역할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는 학부모 상담 주간, 학부모수업 공개의 날 등 공식적 행사가 존재한다. 학부모는 참관적인 자세로 매우 수동적 존재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식적 행사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교육적 가치나 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 공개와 민원이 없는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책무감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시스템의 관행(혹은 퇴행)적 운영 등 일부 부적 현상이 있다. 반면 민원이 많은 곳은 교권 침해 및 교육

활동의 개입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의 자율성을 제재받고 있다. 서로 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부모들 대상의 연수의 필요성, 학교 내 학부모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관리자가 인식하고 학교 내 교사와 직원, 학교 밖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마인드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학교장이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학교장이 학교의 중책 리더로서의 책무와 동시에 권위를 인정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학부모는 학교를 대학 입시를 위한 기관 또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철학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권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 활동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이 형성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수익자 중심, 학생중심, 학생 맞춤형 구호에 맞춰 만들어진 각종 법령과 제도는 교사의 교육을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학교로부터 자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책임 의식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 사례처럼 자녀의 교육권을 학교에 위임한 학부모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자료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학부모 교육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추진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책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아동 발달 이해, 부모 역할, 자녀와 대화법, 학교 교육의 이해)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고려한 교육 내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인센티브(참여수당 지급, 유급 휴가제 도입, 강좌 학점제 운영, 주민센터 등의 프로그램 활용 쿠폰)를 제공하여 학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청별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 학년 군 입학시(초 저/고학년)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부모교육의 시간과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 교육, 단기 특강과 장기 교류 학습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방식을 고안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지원이 선결되어야 학부모 교육과정 이수제, 학부모교육 참여 휴가제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참여 수당 지급(복지포인트, 사회적 쿠폰, 가족 식사권, 지자체 쿠폰 등), 세제 혜택(주민세 감면 등 세액 공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이 후속 연구로 진행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경기교육 학부모 역할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결된 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본 틀로 하여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교육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증거-기반적인(evidence-based)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연(2011). 학부모 학교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 현안보고 OR 2011-0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a). 학부모교육백서.
- 강경리(2019).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 교권에 대한 의미 탐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3(3), 1-27.
- 김성천, 김요섭, 김인엽, 김진화, 김혁동(2019). 학교자치2. 테크빌교육.
- 김승보 (2015). 학부모의 교육참여: 현실과 과제. 학부모연구, 2(1), 1-23.
- 김은영 · 이장이 (2016). 초중고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27-49.
- 김은주(2018).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167-197.
- 김선규(2001).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만(2018).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경인교육대학교 교·로베르타 골린코프 외(2019). 최고의 교육. 육전문대학원
- 황철형, 최류미, 김대현(2019).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초등교사의 시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5-127
- OECD(2012a). Innovative research-based approaches to learning and teaching. DOI:10.1787/5k97f6x1kn0w-en.
- OECD(2012b). Let's Read Them a Story! The parent Factor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ISBN-978-92-64-17623-2
- OECD(2013). Innovative learning environments. DOI:10.1787/9789264203488-en
- OECD(2015a). 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Making Reforms Happen. OECD Publishing. ISBN-978-92-64-22544-2
- OECD(2015b).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Schooling redesigned towards innovative learning systems. DOI:10.1787/9789264245914-en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 방안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2팀²⁾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옛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연일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도 공존하고 있다. 기계와 인간의 특이점을 논할수록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더불어 인성 함양이 강조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의 양이 늘어 갈수록 특정화된 한 종류의 기술로 먹고사는 시대가 아니라 영역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상호연결이 확대되고 정보량 급증에 따라 타인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성의 덕목이 필수적이다. 즉, 인성이 실력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을 들여다볼 때 나날이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교권 침해 또한 심각하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학생들은 대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 등 인성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쟁적 교육, 사회 풍토는 인성교육의 심화를 저해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는 인성교육을 학교에 의존하고 학교 교육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나 전반적인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학교에서 배려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교육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 인성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그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성교육의 성과는 가정 교육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의 공감대와 협조를 이끌어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교원: 차현진(삼평유), 장미경(화홍고), 최상권(부안중), 학부모: 박서윤(분당경영고), 장희진(산들중)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자녀의 인성에 대한 인식과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이 확산, 심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성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유·초·중·고·특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의 인성에 관계된 세부적인 인성의 덕목은 경기인성교육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 범주 중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학업을 수행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에 집중하였고 이 두 범주를 사회적 인성으로 명칭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의 자녀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1) 자녀의 인성에 대한 전반적 생각
 - 2)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 3)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2. 자녀의 인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3. 자녀의 인성교육에서의 중점 덕목
4. 자녀의 인성교육이 어려운 이유
5. 자녀의 인성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
 - 1) 자녀의 인성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의 방법
 - 2) 자녀의 인성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및 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초·중·고·특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녀가 한 명 이상이고 학교급이 교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역이나 자녀의 학교급을 별도로 표집하지 않고 경기도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Ⅲ 인성교육 정책 및 선행 연구

1.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은 법률의 제정 이유³⁾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 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3) 인성교육진흥법(2015) 제정 이유

위하여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밝히며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인성교육과 핵심 가치 등은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의 정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
- 핵심 역량: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2. 인성교육종합계획 및 경기도인성교육시행계획

가. 인성교육종합계획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고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5년 법 제정이후 2016~2020년에 1차 종합계획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2021~2025년에 걸쳐 2차 종합계획이 추진 중이다.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 다음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추진 체계이다.



나.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인재상으로 상정하고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인성교육에서는 인성의 범주를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그리고 지적 인성의 네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인성으로 공동체적 인성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하는 인성으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데 필요한 자질이다. 또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인성으로 과업 완수 지향적인 능력이며 학업이나 직업처럼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은 경기인성교육 모델이다.



3. 인성교육 선행연구

배상식, 서미옥(2012)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 교육이 성적향상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소홀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교사들은 가정 교육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둔 반면 학부모들은 기본수업과 통합한 인성교육의 실시를 원하였고 다음 순으로 가정 교육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요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이 교사나 학교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 지역기관,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이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참여가 포함된 인성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현주, 이혜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2013)은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인성교육을 진단하고 발전 과제를 탐색하였다. 초, 중, 일반고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성적 덕목은 '타인 배려'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으로 볼 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인성 덕목으로 '성실(근면)'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고 부모들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보다 중, 고등학생의 덕목별 인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지도 중점은 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는 기본 생활 습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인성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계획 속에 포함된 인성교육 관련 계획을 모두 실행하는 정도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학교 인성교육이 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볼 때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보다는 '조·종례를 통한 훈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훈화 활동은 인성교육에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정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인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자녀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모들은 '생업에 바빠서'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다. 향후 우리나라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학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박균열, 김순남, 정미경, 주영효, 박호근, 김진규(2015)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물적자원이 확보되고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개선되는데 기여하였지만 학교 교육에 정착 기반이 취약하며 경쟁적 교육·사회 풍토가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인성교육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성교육을 학교에 의존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인성교육 진흥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

로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함양될 수 있도록 공동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중심의 인성교육을 체제화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별 차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현아, 진미정(2013)은 가정 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을 탐색하였다. 부모 면담을 통하여 가정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아동·청소년 차원의 문제로는 빈곤한 청소년 놀이문화, 욕설 사용이 보편화된 또래문화, 발달 단계상 특성(중학교 시기 절정 반항기) 등을 제시하였고, 부모 차원의 문제로는 무서운 엄마들 문화와 불안감, 가정 내 아버지 부재,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부재 등을 들었다. 학교 교육 차원의 문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학교와의 소통 부재, 교사의 무관심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TV, 미디어 환경의 유해성, 군중심리, 장시간 근로문화로 인한 부모의 늦은 귀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 차원에서 부모교육 활성화와 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급별 부모교육 이수제, 부모교육 채널의 다양화,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부모 네트워크 활동기를 양성하며 아버지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 차원의 방안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교의 인성교육 역할을 증대하고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인성교육 환경으로써 교사와 부모가 함께 역할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으로 정규 교과 내 예비 부모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저학년 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예체능교육 확대를 통한 감성 순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범사회적으로 욕설 등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TV,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손은경, 김동례(2016)는 유아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의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기본 생활 습관과 일상생활 지도였으며 지도의 방법은 주로 이야기 나누기로 책을 통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활동 정도가 낮은 이유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로 인성교육의 방법과 정보가 부족함으로 파악되었다. 인성교육에 대해 부모참여의 필요성은 부모교육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연구(설문조사) 분석

1. 자녀가 다니는 학교급별 [양적]분석 (둘 이상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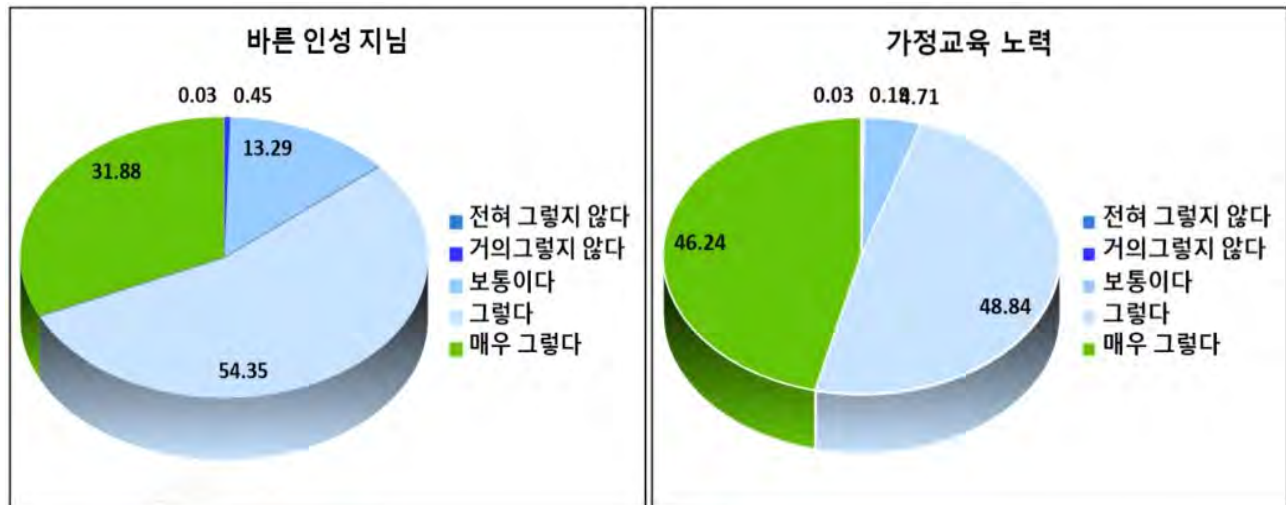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227	2,509	752	267	6	3,761
6.04%	66.71%	19.99%	7.10%	0.16%	100%

첫 번째, 양적인 입장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교급별 학부모들을 분석해 본다면, 전체 참여 학부모 3,761명 100% 중 초등학생 학부모가 2,509명으로 전체 66.71%의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학부모로 752명으로 전체 19.99%였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학부모로 267명으로 전체 7.10%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의 차원에서 실제로 확인한 방향은 전체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으며, 입시와 진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도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낮은 결과였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원인을 연구진에서 논의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님의 참여율은 설문 홍보에 대한 네트워크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기간과 알림의 부족함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진학과 입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에 그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저조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응답률로 생각해 볼 때, 사춘기에 들어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2학년 학부모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활 지도의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에 높은 관심과 설문 참여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자녀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설문 문항인 ‘자녀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정 교육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1 설문 문항에서는 전체 학부모의 86.23%인 3,243명의 학부모들이 현재 ‘자녀의 인성이 올바른 인성을 지니고 있다’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2-2의 설문 문항에서는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가정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학부모 참여자 수의 95.08%인 3,576명의 학부모 참여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자녀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도 가정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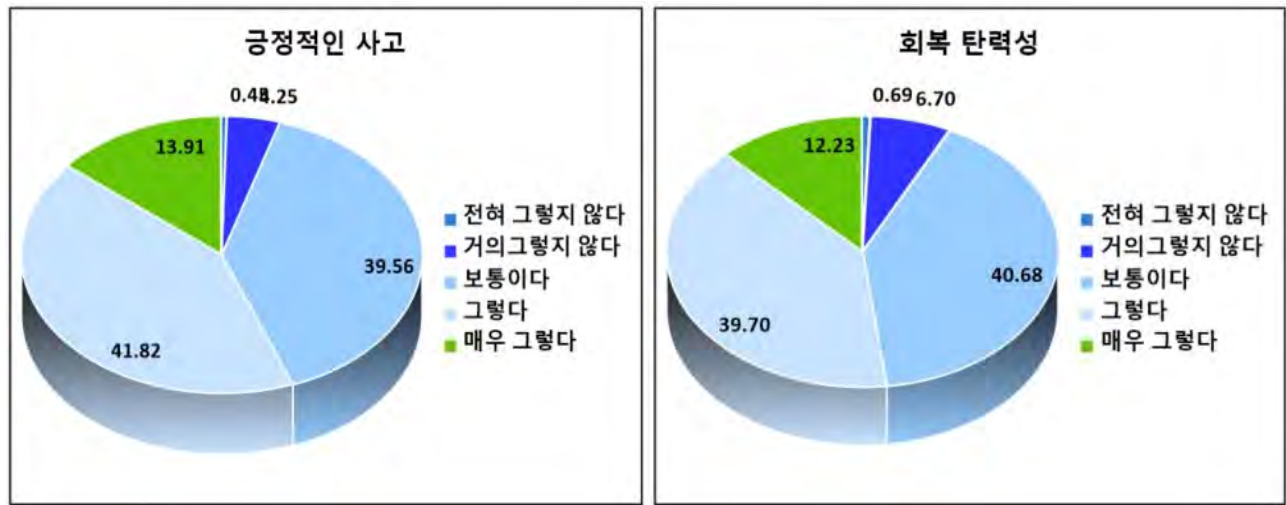
그 외 2-3 문항에서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전체 의견 중 85.51% 약, 3,216명으로 나타났으며, 2-4의 문항에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뢰도로 ‘보통’과 ‘그렇다’ 이상의 의견이 91.21%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의 문항에서는 84.02%인 3,160명의 학부모는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과정보다 더욱 인성교육의 교육적 비중(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6 문항을 통해 볼 때, 81.41%, 3,064명의 학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인성교육 과정과 그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 인성교육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인성교육이 더 밀도 있고 내실 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도 함께 확인하였다.

3. 자녀의 인성 항목 평가 (12가지 항목)

세 번째, 설문 문항인 '인성 항목에 대해 자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서 현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인성 항목 관련 평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내 자녀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낙관주의)를 묻는 3-9 항목과 3-10 항목 '내 자녀는 실패한 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묻고 있다. 이 두 항목은 김주환(2011)이 제시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두 문항은 설문 응답에서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숨은 의미를 해석하였다. 두 항목은 수행적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좀 더 관련된 인성 덕목이다. 교사들은 두 항목과 관련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인성교육 내면화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크게 느낄 수 있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학업적 수행을 보며 느끼는 점이 설문 응답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인성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체험 및 실천 중심의 수업 구성과 지도안, 학습지를 구성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실제 수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정책의 방향, 가정에서의 연계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항으로 보인다.

이외 대부분의 인성 항목 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인성 평가로 80% 이상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정 질문인 3-8 문항 '내 자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풀이를 하는 편이다'와 3-11 문항 '내 자녀는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문항과 그 외 긍정 질문의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적인 노력과 학교와 가정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4. 인성교육에 대한 ‘핵심 가치’ (중요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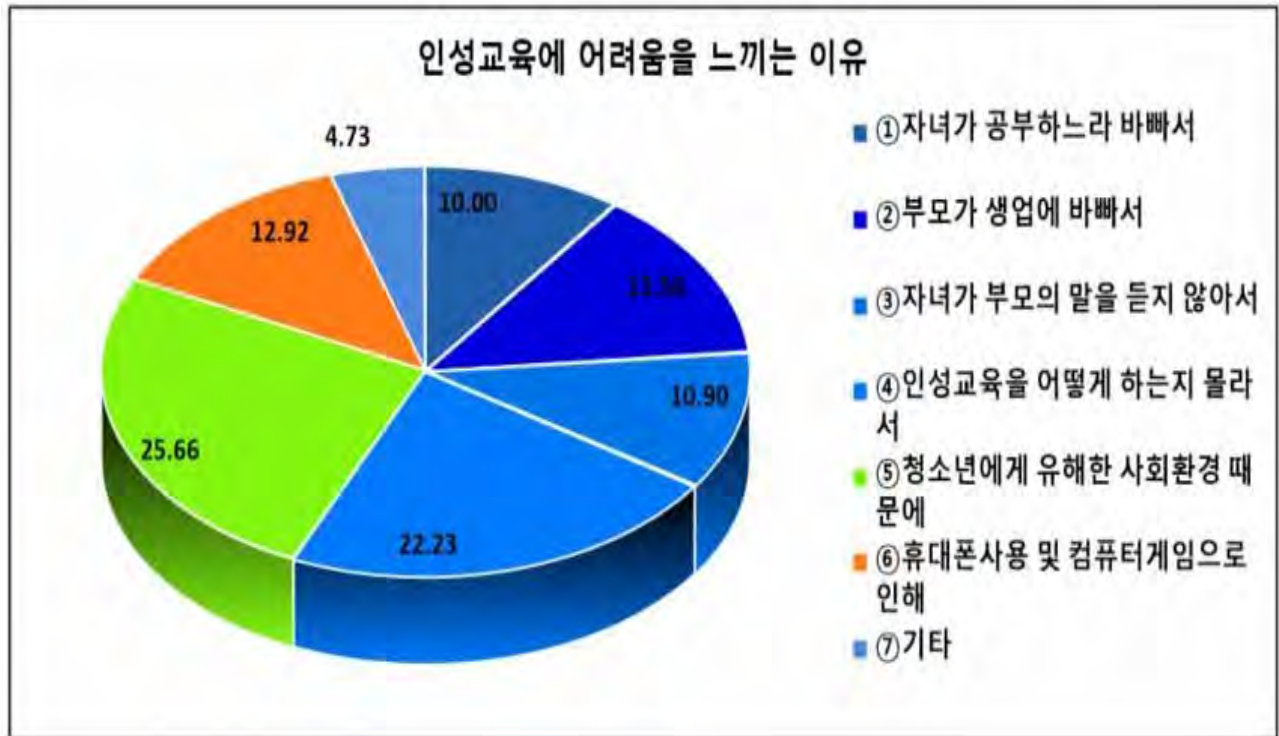


네 번째, 설문 문항인 ‘인성교육 시 가장 중점에 둘 덕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사회적 인성’(공동체적 인성 + 수행적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인 ‘존중’과 ‘배려’가 80% 이상 중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과 ‘책임’과 같은 가치와 덕목들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비율을 합산했을 때 90%가 넘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점차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타적이고 공동체성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차원에서 관련 덕목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장의 교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갈등해결능력’이나 ‘회복탄력성’, ‘자기규제’ 등의 덕목에 대해서는 선택과 중요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인성교육의 방향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다양한 가치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자녀의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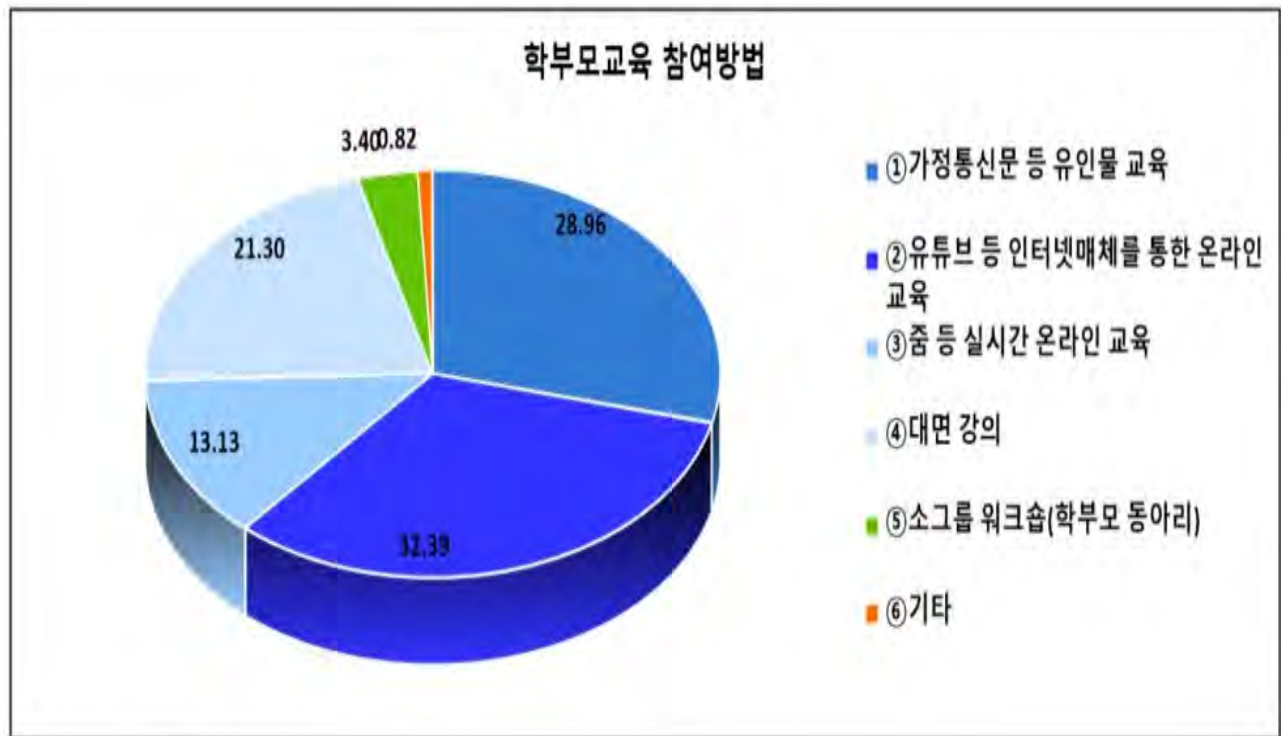


다섯 번째, 설문 문항인 ‘자녀의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다. 처음에 본 설문 문항을 구성할 때 연구진은 ①의 입시 위주의 교육적 상황이 반영되어 학업으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은 가장 문제로 느끼고 어려워하는 점으로 ⑤번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적 환경(인프라)과 ④번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의 모호함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오히려 ⑥번과 같이 휴대폰의 사용이나 컴퓨터 게임 중독 문제 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가 협업하여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⑦번의 ‘기타 내용’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시켜도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부딪치게 되는 직접적이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관여하여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나아가 ‘자녀가 다른 친구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표현도 다수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인성교육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마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기관이 함께 연대하고 협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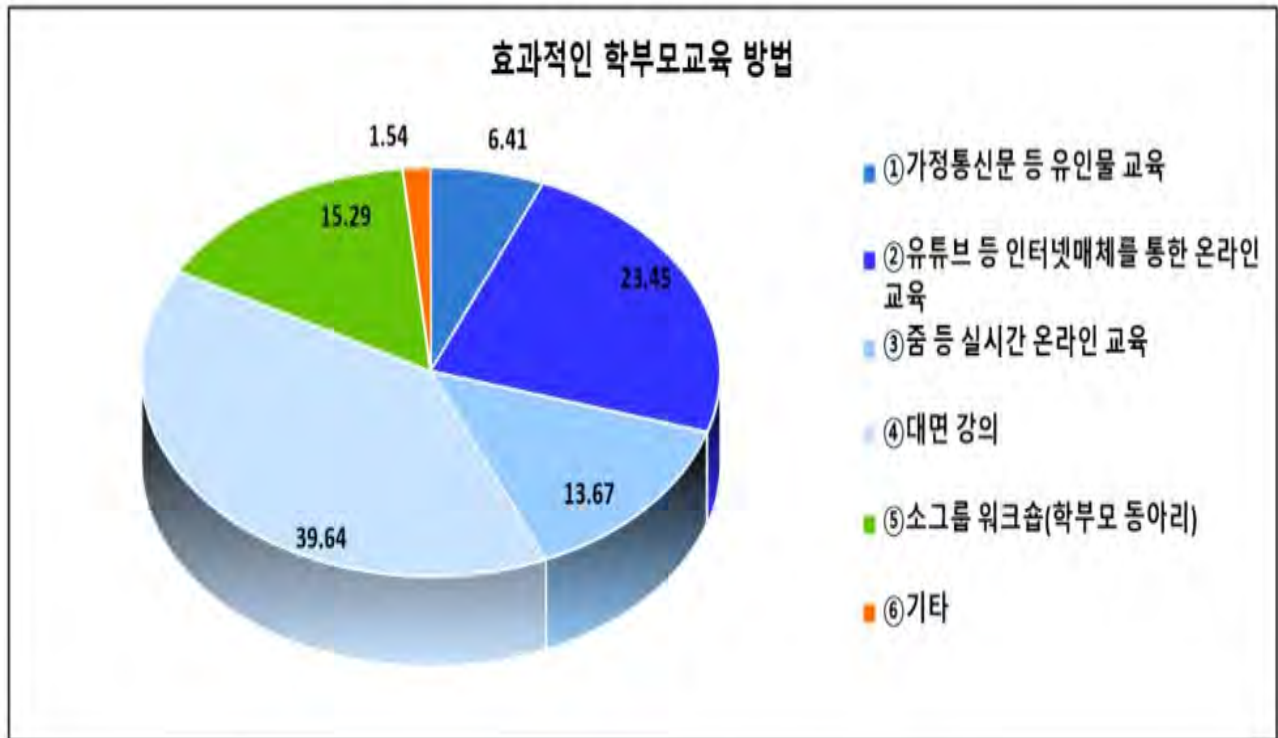
6. 학부모교육의 참여 방법에 대한 의견



여섯 번째, 설문 문항인 ‘학부모교육의 참여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학부모의 가장 높은 응답은 ②번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온라인 교육’(32.39%)과 ①번 ‘가정통신문 등 유인물 교육’을 통한 전달 연수(28.96%)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온라인 연수가 익숙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④번 대면 강의(연수)와 ⑤번 소그룹 워크숍(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진행과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의 ⑥번의 ‘기타 의견’을 보면, 학부모들이 퇴근 이후 일과 후 학부모 필수 연수 또는 대면 연수를 운영하여 직장 상황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하이브리드(온라인+오프라인)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연수는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연수로 개설하면 교육 주체로서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협업과 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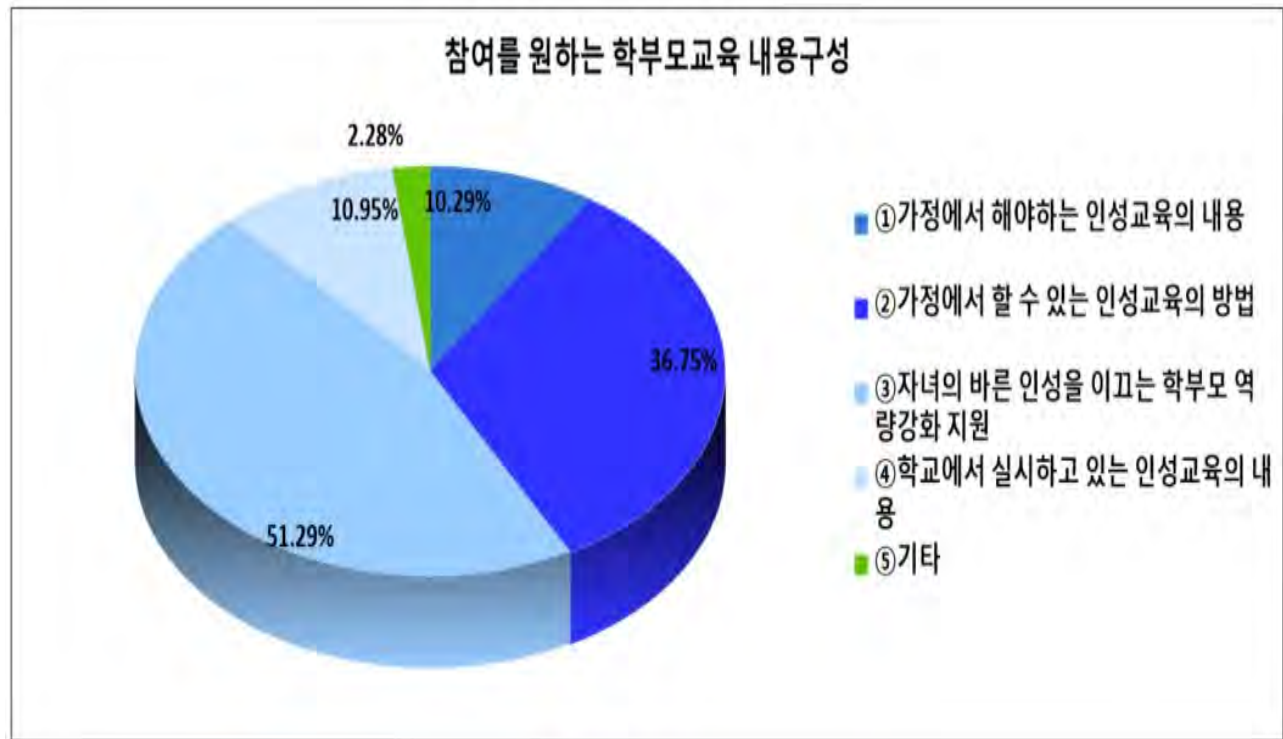
7. 학부모교육의 효과적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



일곱 번째, 설문 문항인 ‘학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가장 높은 문항 선택 의견은 ④번 ‘대면 강의’(39.64%)와 ②번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온라인 교육(23.4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교육의 참여 방법으로는 대면 강의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연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대면 연수가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 근무 등 학부모의 시공간적 한계성을 생각할 때 온라인 연수가 효율적이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⑥번의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청 중심의 지역 거점 교육 및 연수의 실시, 주말과 휴일을 활용한 소그룹 워크숍, 전문가, 명사 초청 특강 및 연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필수 교육(연수) 이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에 관심과 요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학부모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



일곱 번째, 설문 문항인 ‘학부모교육의 구성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학부모의 가장 높은 문항 선택 의견은 ③번 ‘자녀의 바른 인성을 이끄는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51.29%)과 ②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 (36.75%)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가정에서 먼저 학부모가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⑤번의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 주체의 측면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연수 및 교육,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일관성 있는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인성교육 선행 및 기초교육, 예를 들면 유치원 교육활동 등과의 연계된 체험중심 교육 키트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V 연구 결과 및 제언

1. 연구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2팀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인성 기르기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높으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자녀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모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지만,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적향상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교육기관의 한계성을 이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인정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현 부모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녀 교육, 특히 인성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업 지향적인 사회 환경과 디지털로의 급속한 전환은 성인마저도 윤리적 반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쉽지 않다. 하물며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성숙시켜 가는 과정에서 물밑듯이 쏟아지는 테크 기업의 상업적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된 현 자녀 세대에게 충분한 교육 없이 사회적 인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인 세대에서 나타나던 성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흡연, 강박과 불안증 등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더 이상 일부 일탈 학생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존중, 배려하고 함께 협력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성을 길러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의 인성 교육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성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이제 학부모가 그 교육의 한 축을 책임감 있게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모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하려면 학부모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녀가 속해 있는 교육기관의 시스템을 알고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사회적 인성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제언

가. 학부모교육의 통합 관리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내용으로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산발적이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단기성 교육이 대부분이라 연계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교육 이력이 남지 않아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느 시기에 이수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개인 교육 이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 학부모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급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방이 아닌 토론식의 자주적인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회,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료 학부모, 선후배 학부모 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 교육 이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도 시간적 한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학부모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저녁 시간을 이용한 교육, 온라인/대면 모두를 활용한 교육, 공유센터 이용의 시간적 허용, 교육 이수를 위한 혜택, 교육 이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 경기도교육청(2023).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위즈덤하우스.
- 박균열, 김순남, 정미경, 주영호, 박호근, 김진규(2015).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배상식, 서미옥(2012).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및 실태. 교육학논총.
- 손은경, 김동례(2016). 학부모가 인식한 유아 인성교육 실태 및 요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6), 330-345.
- 이현아, 진미정(2013). 가정내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지원 방안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65-81.
- 인성교육진흥법.
- 조벽(2016). 인성이 실력이다. 해냄.
- 현주, 이해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부록〉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정책과 관련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방안 마련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에서 학부모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설문 문항을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생각과 부합하는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9.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 학부모정책 워킹그룹 2팀

1.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급(현재 재학 중인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해 응답)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특수학교

2. 학부모님은 자녀의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내 자녀는 전반적으로 바른 인성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가정교육에 힘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인성교육은 학교보다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학교 인성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님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자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 자녀는 필요한 경우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 자녀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 자녀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 자녀는 남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생각을 조율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 자녀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 자녀는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 자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풀이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 자녀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0 내 자녀는 실패한 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3-11 내 자녀는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12 내 자녀는 잘못된 일을 보면 바로잡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을 위한 자녀의 인성교육을 할 때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할 덕목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량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 존중 ☐ 배려 ☐ 협력 ☐ 책임 ☐ 공정 ☐ 공동체의식 ☐ 소통능력
- ☐ 갈등해결능력 ☐ 용기 ☐ 낙관주의 ☐ 회복탄력성 ☐ 인내 · 끈기
- ☐ 자기 규제

5. 학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중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자녀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 ② 부모가 생업에 바빠서
- ③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 ④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 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회 환경 때문에
- ⑥ 휴대폰 사용 및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서
- ⑦ 기타(직접 기재:)

6. 자녀의 인성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이 실시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는 모든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정통신문 등 유인물 교육
- ②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온라인교육(녹화 송출)
- ③ 줌 등 실시간 온라인교육
- ④ 대면 강의
- ⑤ 소그룹 워크숍(학부모 동아리 등)
- ⑥ 기타(직접 기재:)

7. 자녀의 인성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이 실시된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통신문 등 유인물 교육
- ②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온라인교육(녹화 송출)
- ③ 줌 등 실시간 온라인교육
- ④ 대면 강의
- ⑤ 소그룹 워크숍(학부모 동아리 등)
- ⑥ 기타(직접 기재:)

8.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
- ②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
- ③ 자녀의 바른 인성을 이끄는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
- ④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
- ⑤ 기타(직접 기재:)

학부모 교육 주체화의 실현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3팀⁴⁾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부모는 교육자치제하에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훑아보고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학부모는 단위학교 자치 강화의 하나로 학령기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2010년 ‘학부모참여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12년 학부모지원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이끌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장과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게 되었고, 교육과정, 학교생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적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양질의 시민 참여를 경험하여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의 뒷받침이 병행되었다. 학습자, 교사, 학부모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축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학부모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 1기는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로 약 12년동안 제도적으로 공고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도내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학부모 참여 2기는 그간의 참여 활성화 기반위에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 함양(탄탄한 인성),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강화(단단한 미래), 학부모 교육참여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온마음으로 지원하겠다(튼튼한 관계)는 의미를 담고 ‘온품(온마음을 품다) 학부모교육’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자녀교육 및 가정 내 기본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체적인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온품 학부모교육’이란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학부모교육

4) 교원: 박준표(월문초), 장미라(포곡초), 이희문(용문중), 학부모: 장보영(수일여중), 김혜진(부천중흥초)

이 가정-학교 간 따뜻한 동행과 경기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지속적(on)으로 지원하고,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 함양,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참여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온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을 함양,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학부모교육 강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정-학교 간 학부모 교육참여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소질 및 취미 개발 성격의 학부모 동아리 형태로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자녀의 인성 및 미래역량 강화를 공감하며 지원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습 및 연구의 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와 연계한 배움과 실천으로서의 장(場)인 가정,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원,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정-학교 간 학부모 교육참여 협력관계 모색, 학교 교육 및 방과후 돌봄·주말 학교의 서포터즈로서의 역할 실천, 학부모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 학부모의 집단지성을 통한 성장으로 교육동반자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동아리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습공동체로의 도입은 필요하며, '온품 학습공동체'의 도입은 경기교육의 목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 연구 문제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 가.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는 무엇인가?
- 나.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의 운영 사례는?
- 다. '온품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 류방란 등(2015)이 제시한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교육, 지원, 소통 등의 활동”

나. 학습 공동체와 유사 개념

• 학습 동아리

: 학습 동아리는 한가지 배움의 주제를 가지고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공동체

- (주체) 일정한 인원의 성인학습자
- (과정) 자발적으로 모임 구성
- (방식) 정기적인 만남
- (목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
- (비전)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
- (성격) 실천성, 개방성, 유연성, 지속성

• 전문적학습 공동체

: 교원들이 자발성, 동료성, 책무성을 바탕으로 수업과 교육활동 혁신을 위해 함께 연구·실천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학습공동체

- (개념 분석)
 - [전문적] 가르침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판단 존중
 - [학습] 교사들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연구 실행
 - [공동체] 학교 개선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 동료 간 팀 구성, 함께 일하며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하는 관계양식
- (목적) 단위학교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공동연구] 함께 수업개발을 실천하며 [공동실천]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집단성장] 현장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학교역량강화]

다. 학습 공동체

: 학습 공동체 (Learning Community)란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습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 결국, 학습공동체는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Ⅱ 이론적 배경

1.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개념 및 범위와 역할

1) 개념

류방란 외(2015, p. 34)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교육, 지원, 소통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가 활동 차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조직이나 역량 강화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범위와 역할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역할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학생의 학업적 성공 교육의 효율성, 운영 개선, 학교 개혁), 학교 참여 내용(학교 운영 의사 결정, 교육보조, 교육 등), 학교활동 참여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교육은 물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와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경희 · 류호섭, 2018, p. 96). 즉, 단순한 자녀에 대한 교육열에 의한 학교 활동 참여 수준이 아닌 자녀의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제의 확대 및 지역 내에서 학교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구조

류방란 등(2015)은 그간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학부모가 학교라는 장을 통하거나 혹은 학교를 매개로 하는 여러 활동을 망라하고 있어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개념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1-1] 학부모 참여기반과 영역

이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기반에 따라 가정기반 참여, 단위 학교기반 참여, 정책 참여 3가지로 나누었다. 그 중 단위 학교기반 참여는 다시 학교참여활동, 조직, 역량강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참여활동에서 학교 경영은 운영 기획과 평가 및 의사 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교육활동 및 지원활동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지원을, 소통 및 정보공유는 학교 참여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활동을 의미한다(류방란 등, 2015). 조직은 그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어떤 양상으로 학교 참여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참여 개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역량 강화는 과거 학교참여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면으로 보았으나 최근 부모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여 주목을 받아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등의 형태가 운영되고 있지만 학부모 스스로가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습하는 공동체 조직·운동을 통해 정립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배움과 연구를 통해 학생의 교육 활동과 지원활동을 돕고, 가정기반 참여(자녀교육)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그 위상 또한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지원 할 역량강화 중 ‘**학부모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학습공동체의 특성 및 유형

일반적인 공동체의 주된 특성은 공동의 관심사 또는 문제에 있어 공동의 자원과 열정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공동체적 관점에 학습이 더해진 것이 바로 학습공동체이다. 따라서 ‘**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의 관계와 상호작용, 참여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창국(2002)은 학습자가 학습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발성과 주체성을 그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학습공동체는 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의 하나이며 이는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성원은 자신의 학습 또는 다른 동기에 의해 스스로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의 주체로서 다른 주체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 목적에 다가간다. 따라서 ‘**의사소통**’ 역시 학습공동체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구조를 기반한다. 학습공동체에서 의사소통 방법은 주로 구성원 간의 ‘**대화**’다. 구성원 간의 지속적이고 반성적 대화는 그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목적, 가치 공유와 실행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승희, 1999; Wenger, cdermott & Snyder, 2002; 조부경 외 2005; McLaughlin & Talbert, 2006) 하고 있음은 관련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집단학습** 또는 **공동체 학습** 역시 학습공동체의 기능이자 특성이다.

‘**학습공동체**’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의 목적에 대한 강한 신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공동체다.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협력과 존중, 이해와 배려, 지식의 공유와 창출, 그리고 성숙한 학부모로서의 책임이 기반된 봉사정신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학습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 사실 다소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만으로도 학습공동체 구현은 그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이병준 · 장소은, 2013). 이는 본 연구가 학부모들의 학습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학습공동체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지식의 성숙도와 공식화의 정도에 따라 **동호회형 학습공동체**, **학습형 학습공동체**, **문제해결형 학습공동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⁵⁾(이홍, 2005).

동호회형 학습공동체는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결성된 학습공동체이다. 동호회형 학습공동체의 경우 지식의 성숙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비공식적인 공동체로써 관심사에 대한 토의와 지식공유가 주요한 활동의 목적이 된다. **학습형 학습공동체**는 공통의 학습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학습형 학습공동체는 중간정도의 지식성숙도와 공식적 조직일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 조직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학습형 학습공동체의 경우 주로 업무관련 주제가 학습의 대상이며, 이를 통해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한다. **문제해결형 학습공동체**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모이는 소그룹이나 네트워크를 말한다. 문제해결형 학습공동체는 전문지식, 노하우, 경험을 상호 공유하며, 기관의 핵심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공식적 조직으로 지식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공동체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론적 분류로 살펴보면 학부모학습공동체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깊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동호회형)이며, 지식의 성숙도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공통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하고, 지식성숙도를 업그레이드(학습형)하여 궁극적으로는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발생될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지향(문제해결형)할수 있는 복합적인 유형을 지니고 있다.

3. 기존 학부모학습공동체 정책제안 사례

학습공동체에 대한 제안이 드러난 몇 가지 보고서를 살펴보고 인용하였다.

[제안1]⁶⁾

『대한민국 학부모』라는 책을 보면 ‘학습하는 학부모’라는 담론에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교육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학습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책의 4장 ‘학습하는 부모’에서는 우리의 교육열이 ‘학습하는 부모’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에너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모는 ‘평생담임’이라는 표현에서와 같이 교사와 같은 양육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성장과정에 따라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또한 달라지기에 부모로서의 삶의 과정은 평생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연수, 학부모아카데미를 보면 학교를 불문하고 항상 소수만이 자리를 채운다. 우리의 교육열을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5) 이 홍. (2005). 지식경영의 필요성과 성공전략, 「지식관리 토론회 자료집」, 행정자치부

6) 임현화(2022), 대한민국 학부모 학부모에서 학부모회 네트워크의 길을 탐색하다

인용된 글의 필자는 『대한민국 학부모』란 책을 통해 학부모의 정체성과 위상을 언급하였고, 학부모 정책 중 ‘학부모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담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교육열이 ‘학습하는 부모’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에너지**라고 하는 문구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즉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가진 교육열에 비해 학부모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겨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학습하는 학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다음 필자의 의견을 보면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로서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제안2]⁷⁾

학부모(學父母)는 학생(學生)을 자녀로 둔 부모(父母) 또는 보호자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사회경제적인 배경(SES)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연수의 효과는 학생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부모연수는 학생교육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를 노리고 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학부모 역량강화 방안으로 학부모아카데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략)

단위학교별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학습은 다양하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이중언어교육 학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소통방법,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과정 관련 학습 등 단위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는 단위학교의 학년이나 학급별 학부모 학부모와 교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학부모 개개인의 사적 입장보다는 학부모회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하는 입장을 벗어나 **‘학부모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임’**을 인식하여 단위학교별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그간의 학습 동아리 형태로 진행된 다양한 학부모 참여 활동 중 학습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를 도출해 학습공동체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실제 학습공동체를 실천한 리더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워킹그룹 위원이 직접 제안하고 실천한 사례를 기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학부모학습공동체**’의 표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학습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해 본다.

7) 김혁동,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의 첫걸음, 제12차 한국학부모학회 학술대회 (2020)

IV 학부모학습공동체의 실제

1. 기존 학부모학습공동체 사례

국내에 알려진 학습공동체의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평생학습관 학부모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하고 공부하는 부모모임」⁸⁾

- 1) 운영기간 : 3월 ~ 11월
- 2) 사업예산 : 1팀당1,000천원, 20팀 모집(운영물품 구입비, 다과비등 지급 불가)
- 3) 참여대상: 7인이상 구성된 학부모 모임, 학습공동체
 - 경기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음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4) 운영내용 : 공모 통해 자녀교육 주제로 한 20개 학부모 학습공동체 선정 후 온·오프라인 학습모임 활동 (강사비 지원)
- 5) 공개강좌 : 20개 학부모 학습공동체 주최로 주제별 공개강좌 운영
- 6) 참여하고 공부하는 부모모임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연번	공동체명	프로그램명	지역
1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	학교 밖 청소년 부모를 위한 치유하는 글쓰기	화성
2	함께 우리	경계성 지적지능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자녀이해	오산
3	손에손잡고	행복하고 주체적인 아이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 철학 이해	용인
4	우아모	우리 아이 생애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김포
5	한글을 논하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학부모의 자녀와의 한국어 소통능력 기르기	안산
6	그림책 마실	장애 자녀 부모의 상황과 마음상태를 그림책으로 재해석	평택
7	책소리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독서 창작 문화 전파	구리
8	운정고 학부모독서모임	주제에 맞는 책 선정 후 생활 속에서 적용방안 실천	파주
9	얼썬(놀이동아리)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래놀이 연구	이천
10	책 읽는 엄마	그림책으로 마음이 성장하는 부모와 자녀	동두천
11	이야기숲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수원
12	THE 잘자람	건강한 청소년 진로를 위한 역량 강화 학습 모임	김포
13	동구리	자녀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시흥
14	꼬투리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읽고 쓰는 엄마들	고양
15	서종면 학부모 모임	하브루타 부모교육(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대교육방법)	양평
16	책수다	부모와 자녀의 공감대화 능력 강화 과정 운영	안산
17	마두산책북클럽	자기 치유와 글쓰기를 접목한 '아티스트웨이'를 활용	고양
18	이음 학부모회	동두천,양주 관내 학부모회 네트워크 협의회 연수 운영	양주
19	온아	디지털 미디어 역량강화 운영	수원
20	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공감	고양
총 20개		합 계	

8) 경기평생학습관 학부모학습공동체(2020)예시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89

나. 충남 학부모학습공동체⁹⁾

- 1) 운영기간: 2023. 5. ~ 2024. 1.
- 2) 지원대상: 10명 내외의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학습공동체
- 3) 지원예산: 교당 100만원 이내 (회원 규모와 신청서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
- 4) 운영내용
 - (주제연수) 학교혁신, 참학력 신장, 학생 자치활동, 미래교육 등
 - (독서토의) 도서 선정, 독서 후 대화 참여, 소감 나누기, 주제토의 등
 - (교양신장) 다도교육, 예체능 기능 신장, 목공기능 신장 등
 - (교육기부) 독서캠프, 학교 행사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활동 등
- 5) 운영방법
 -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허용적 분위기 조성
 - 학습공동체 운영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지정
 - 공동체를 구성하여 연수, 독서, 교양, 인성교육 등 역량 강화
 - 학습공동체를 통해 익힌 역량을 학교, 지역사회에 환원
 - 강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 사용
 - 협의회비는 지원금의 5% 이내 편성
 - 교육기부 활동에 지원금의 20% 내외 편성(물품기부 금지)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습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권장
- 6) 운영지원: 교육지원청 주관 운영 컨설팅(학기당 1회 이상)
- 7) 기대 효과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으로 동행하는 학교문화 조성
 - 학부모의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

다. 경남 함안교육지원청-¹⁰⁾‘학교 밖 행복한 학습공동체’

- 1) 정의: 학부모 및 지역민이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 모임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와 교육의 주체로서 지역민이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단체
- 2) 운영 기간: 00. 4. 1. ~ 00. 12. 16.
- 3) 운영 대상: 6개팀(신청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함안군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0인 이상 1팀 구성
 -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회원 구성 가능(주무학교에서 계획서 제출)

9) 충남-학습공동체2020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0) 경남-함안행복교육지구센터.(2022)함안-학교밖 행복한 학습공동체 공모 계획

4) 운영비 지원

- 팀당 5,000천원 내외 (신청 수 및 팀별 인원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공동체의 대표자(학교) 학교 운영비 교부 예정

5) 운영 장소: 학교 시설 및 다중 이용가능 시설 이용(주거공간 및 종교시설 등 단체모임에 부적절한 공간 제외)

6) 운영 방법 및 주제

- 연구 방법: 학습공동체 구성 후 제시된 연구주제 추진
- 연구 주제(예시)
 - 자녀이해와 가족관계 개선
 - 다문화 이해교육
 - 민주적 학교 참여
 - 학부모 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

순	공동체명	학교명	활동내용
1	유원초 행복한 학습공동체 '너나들이'	유원초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만들기
2	꽃봉우리	군북초	꽃과 함께 성장하며 봉사하는 우리
3	행복마더스	호암초	나눔으로 행복한 우리(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4	GAYA HAPPY MOTHER'S	가야초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만들기
5	MD책꽃이	명덕고	함안지역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탐구 및 학부모 역량 강화
6	니랑 내랑 엉가랑	칠원중	독서 토론&아로마테라피, 그린테라피를 통한 치유헌동

2.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온품¹¹⁾ 학부모학습공동체 제안

가.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의 개요

- 1) 정의: 온품 학습공동체란 가정-학교 간 따뜻한 동행과 경기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지속적(on)으로 지원하고,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 함양,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을 키우기 위해 학부모가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
- 2) 성격: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및 교육의 공동체로 스스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단체

11) '온품(온 마음으로 품다)'은 인성, 미래, 관계를 온 마음으로 품은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경기학부모교육의 새로운 이름

3) 배경

- 자녀교육 및 가정 내 기본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강조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의 중요성 부각
-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에 대한 필요성 증대

4) 목적

- 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참여와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활성화
- 자녀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 학습으로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 마련

5) 방향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전문역량을 교육기부로 제공
- 학교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지속적 학습공동체 활동 운영
-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교육과정의 지원·참여와 연계된 학습공동체 운영
- 학습과 연구가 실천으로 연계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 미래교육 역량 강화 제고
- 학부모-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동반 성장확산

6) 기본 철학: 공공성을 바탕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7) 기본가치 구현을 위한 원칙: 자발성, 주체성, 지역성, 연대성, 선도성 등 실천적 원칙

8) 역할: 바람직한 학교참여 및 지원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자녀 교육에 적용 및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학부모에게 소개하고 독려하며, 학교를 지원

9) 기대효과

-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지속적인 학교 교육활동 지원
-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으로 동행하는 학교 문화 조성
- 학부모의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

나. 온품 학부모 학습공동체 권장 주제(안)

과제	목적	온품 학습공동체 주제 예시
[인성 품은]	자녀교육 역량 및 전문성 함양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실천 및 사례나눔(자녀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이해, 건강한 양육 가치관 형성), 특화된 자녀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가족 간 소통 활성화 및 내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부모 참여형 인성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형인성교육 모델과 자녀교육, 존중·배려·협력·책임의 인성 기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 생활교육, 감정코칭, 생명존중, 인성 육아, 인성 놀이, 우리 고장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교육, 시민인성교육, 독서기반 자녀교육 인성 교육등

과제	목적	온품 학습공동체 주제 예시
[미래 품은]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	디지털 시민 ·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챗 GPT 교육적 활용 방안, AI활용교육, 메타인지, 메타버스, 메이커 교육, OECD핵심역량, 미래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경기형IB, 고교학점제, 하이러닝, 경기형 그린스마트학교 등)이해
[관계 품은]	학부모 교육참여 협력 관계 구축 방안 연구 · 실행	학부모 교사 간 학교 및 자녀교육에 대한 상호신뢰 방안(학부모의 책임과 의무, 선배맘이 들려주는 우리학교 바로 알기, 학부모 학교 참여의미), 학부모 교육과정 학습 및 연구, 배움이 느린 아이의 대한 이해, 성장하는 학부모로 거듭나기, 우리 학교 갈등관리 근육키우기 등

3.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 제안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품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개요(안)

구분	대상	학습공동체명	주요활동
학교내	유아	‘온오프 마을 육아 공작소’	• 유아 부모로 학부모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며, 자녀발달단계, 건강한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과 생활지도, 유아교육기관의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교육과정의 이해, 부모 건강 관리, 교육공동체로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방안 모색 등
	초등	‘비둘기’(갈등조정) 학습공동체	• 학부모 공동체로 학교폭력(디지털 시민성 부재로 인한 사안등) 조정과정에 도움 • 극한의 대립으로 가기 전 교내 안전과 갈등조정 •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을 통한 갈등조정문화 확산 • 비폭력대화법 교육으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
		‘동행’ 학습공동체	• 학사일정과 동행한 주제선정, 그에 맞는 학습 진행 • 학습한 결과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재능기부 • 학사일정 연계 학습으로 아이들의 학습과 학교 긍정적 이해, 소통
	중등	‘마 성’ (마음 성장) 학습공동체	• 자기이해 ·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 사춘기 자녀의 특성 이해 및 대응, 정서적 행동 발달 지원 • 교사와 학부모의 원활한 관계 맺기로 상호 신뢰 구축 • 등교거부,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방안 모색 • ‘대화의 꽃’ 대화법(존중, 경청, 역지사지) • 다문화가정 · 다양한 양육자 등 학교 활동에 참여소외계층 가정 학부모의 참여 독려
		‘대화의 꽃’	• 자녀와의 대화법 • 하브루타 마음 대화 •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아버지 학습 공동체	‘놀아주마’ 아버지 학습공동체	• 전통놀이, 공동체 놀이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활동
		‘마을 담은’ 아버지 학습공동체	• 마을전설을 찾아서, 마을 둘레길 만들기, 마을 역사문화 답사 등 아빠-학생들이 함께 마을탐사학습
학교밖	지역 학부모 학습 공동체	학부모 ‘나비질’ 하다	• 학교폭력에 대한 자발적 학습과 성찰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실천, 적용하는 지역 기반 학부모학습공동체
		학부모 ‘숲정이’	• 지역의 문화유산을 학습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에 참여하는 학부모 학습 공동체

3-1. 유치원 학부모 학습 공동체

가. '온오프 마을 육아 공작소'

유아 시기 부모로서의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과 생활지도,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영위,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공동체로서 소통 역량을 기르는 자발적인 학부모 학습공동체, 육아스트레스를 덜고 심신의 건강을 살피며, 학습을 통해 부모의 자기 성찰을 하는 기반을 다져 유치원과의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공동체로 운영됨.

온오프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 유치원
명칭	'온오프 마을 육아 공작소'
주제	책을 매개로 삶과 유아인 자녀 교육을 이야기 하고 소통하다.
목적	• ¹²⁾유아기 보호자가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학습공동체임. • 유아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주도적·자율적으로 펼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처음 학부모로 온전한 민주적 양육과 유아교육 지원 활동에 참여
활동 내용	• 유아교육 전문가인 원장(감)님이 함께 열어 준 유아 학부모 독서 모임(인성동화나라)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책을 선정하여 독서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육아경험에 관한 대화의 장을 갖음. • 나와 우리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공감 및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 더불어 원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놀이교육과정과 유아의 발달 특성의 깊은 이해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의 초청강연 참여, 자녀와의 소통 및 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한 소통 전문강의에 참여함. 부모로서의 소양을 넓히고, 건강한 육아 문화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삶에 도전하여 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함

1) 학습공동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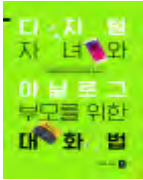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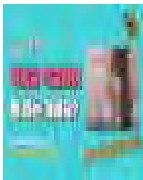
- 도입: 처음 부모로서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육아의 수고로움과 고민을 덜고 함유아의 성장을 위해 교원리 더와 함께 고민하던중 원내 학부모회가 자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학습공동체를 개설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학습을 하게됨
- 대상: 00유치원 학부모회 회원 및 교직원
- 운영: 매월 2회, 온·오프라인 병행 참여
- 내용: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삶과 배움, 자녀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놀이교육과정,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 자녀 및 원과의 소통 방법 풀어내기 등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유아의 부모로서 자녀교육 역량 및 부모의 소양 기르기
- 유아의 발달 단계 이해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육아 지원
- 자녀 및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역량을 기르고 양육 및 유아교육기관 활동 지원

12) 김기수외 7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 개발 인용, 2023.1.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인성 품은	자녀 발달 단계 이해 • 유아기 발달특성 이해 • 유아기 발달 특성의 이해: 주도성 · 자신감 상승전략 •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 미래역량과 인성교육: 사랑으로 인성키우기, 그림책활용 감성교육, 도덕적 판단력 키우기 •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정: 유아기 장애 특성 및 조기 중재, 입양 유아의 정서 이해 및 가족 지원	
	자녀 인성 놀이 연구 • 주도성을 부르는 놀이: 유아 권리놀이, 발달과 놀이의 중요성, 놀면서 배우는 유아기 • 인성놀이 유형 및 방법: 다양한 인성놀이 유형, 함께 노는 우리 가족, 합리적인 놀잇감 선택	
	의사소통과 생활 지도 •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관계맺기, 일상생활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 유아의 건강지킴이: 성인지각수성, 스마트폰 과의존, 영양등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 -유아기 친구 관계 맺기	
	인성이 꽃피는 가정 • 존중의 가족문화: 가정속 유아, 경청의 기술, 가족구성원의 가치, 가족 대화법 • 사랑의 다른 이름 훈육이 혼란스럽다(훈육 바로알기) • 연령별 훈육, 각종 문제상황시 대처할 훈육법, 아동학대와 훈육, 전문가 지원 필요사례 • 유아연령별 아버지 양육기법 •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정: 영재 및 장애유아의 이해, 권리 및 가족관계 지원, 가족역량 강화, 따뜻한 인성중심 부모-유아의 상호작용 기술 • 경기도 교육의 주요인성 '존중 · 배려협력 · 책임' 가정연계지도	
미래 품은	뷰카의 시대 자녀 교육 길라잡이 • 표준교육과정 내용 및 2019개정 누리과정 이해: 환경, 놀이와 배움, 문화 다양성, 장애통합, 행위주체성, 자녀의 변혁적 역량 • 놀이, 어디든 무엇이든 •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된 아이를 키우는 방법 •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유아 교육의 방향 •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인 유아 •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 교육법	 2019개정 누리과정 전문가 연수
	부모와 함께하는 디지털 시민 · 창의교육 • 디지털 시민교육 - 스마트 과의존과 육아 - 디지털 자녀교육법 -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 디지털 창의교육 -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팁 - 학력 및 인성함양 디지털 기기 이용시 주의사항	
관계 품은	유치원 참여 -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에 대한 이해, 참여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 건전한 의견 개진 및 참여 - 우리 아이 유치원 생활이 걱정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학부모상담: 교원과의 학부모상담법 - 유치원 및 교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자녀 · 교사와 대화법 강연
	부모와 자녀 관계 지능 - 우리아이와 이렇게 대화 하고 싶어요. - 육아스트레스 관리(정체성 · 완벽한 부모 · 현실육아 · 관계 갈등 스트레스, 부모위기 상황별 대처) - 올라오는 화를 감당하기 어렵니? - 부모의 자기 성찰: 나 이해하기, 장애유아 문해행동 중재	

• 향후 활용 방안

- 교원- 학부모간 협력 학습 공동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 마련
- 자녀 양육에 대한 무게감을 덜고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로 성장할수 있는 문화 확산
- 유아의 부모로 유아의 객관적인 발달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유아의 성장 발달에 기여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세부사업명	항목	예산 내역	비고
운영영역	학습공동체 교재 구입비	300,000원(15,000원*20권)	50%
	대면 협의회비(간식 및 다과)	200,000원(50,000원*4회)	
교육영역	학습공동체 초청 강연비 (미래교육협력지구 별도지원)	250,000원(250,000원*4회)	30%
	연수비(자체 워크숍)	300,000원 (100,000원*3회)	
활동영역	홍보 및 출판비	200,000원(100,000원*2회)	20%
	기타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학교 자체예산 별도 지원)	100,000원(100,000원*1회)	

3-2. 초등 학부모 학습공동체

가. 비둘기(갈등조정) 학습공동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만으로 학교, 학교밖 갈등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위로 활동하며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아이들은 서로 화해하고 지낼 수 있는 사항에도 보호자들의 감정싸움으로 학폭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학폭’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많이 사용하지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한 절차는 무엇인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기에 ‘학폭’을 정확히 알아보고 골이깊은 감정싸움으로 가기전에 서로간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돌아보며 학생, 학교,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한다. 학폭의 경우든 갈등조정인 경우든 어느 한쪽의 100%만족이란 힘들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방법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해가야 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기에 프로그램을 제안함. 또한 비폭력대화법과 틀림이 아닌 다름을 학습해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의 기초를 쌓아가기를 희망한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 초등학교 학부모회
명칭	‘비둘기’(갈등조정) 학습 공동체
주제	학부모 공동체 갈등조정가
목적	• 학부모공동체로 학교내 갈등 조정과정에 도움 • 학생, 학교, 가정의 안전과 갈등조정참여
활동 내용	• 10시간 교육연수과정 이수후 프로그램과 학습공동체 운영, 가정내 학습으로 연계

1)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
 - 본교 학부모중 '갈등조정'에 대해 관심과 자율의지를 지닌 교내학부모 모임
- 운영 방향
 - 공동체 학습을 통한 이해와 학습결과의 환원을 위한 선순환 공동체 운영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학부모 공동체로 우리아이들의 학교폭력 조정과정에 재능기부
 - 갈등상황 발생시 학교내 안전과 갈등조정
 -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을 통한 갈등조정문화 확산
 - 비폭력대화법을 통한 가정내 인성교육부터 시작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땅 고르기	학교 (디지털) 폭력 알아보기	• 학교(디지털)폭력의 정의 - 학폭은 무엇인가? - 사례를 통한 학폭의 진행과정	00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학폭전문강사
씨 뿌리기	갈등?	• '갈등'상황이란? - 사례들을 보고 갈등상황의 해결과정	한국갈등해결센터학폭심의위원상 담학박사
	다름을 인정하기	• 틀림과 다름은? -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있는 자세 - '다른의견' 독서를 통한 이해	000문화연구소 평생교육사
	법적해석	• 법률적 기준은? - 학폭, 갈등상황에서 법률적 정의와 대응방법	법무법인00 검사,변호사
성장 하기	만일 나라면	• 역할극을 통한 상황이해 - 사례별 역할극을 통한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기 - 조정가의 역할을 통한 제3자시선의 양측입장 이해	대화법전문가 비폭력대화강사
열매 맺기	가정내, 학교내 대화법	• 비폭력대화법 -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상황 - 감정신호등 활동으로 가정의 영향 이해	대화법전문가 비폭력대화강사

- 향후 활용 방안
 - 비폭력대화법을 학습해 가정내 인성교육에 활용
 - 틀림이 아닌 다름을 알아 갈 수 있으며 감정이 아닌 객관적 나를 알아가는 시간
 - 학폭을 신청 진행하기 전 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신청자들간 조정의 자리 운영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운영영역	강사료	50%
교육영역	교육자료등 활용	30%
활동영역	활동운영부분	20%

3-2. 초등 학부모 학습공동체

가. '동행' 학습공동체

학부모회를 운영하면서 많이들 하는 고민이 '어떤' 연수를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강사는 어떻게 알아보나? 이다. 학습공동체 '동행'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우리에게 교육전문가분들이 고민하고 구성해 놓은 훌륭한 학교교육과정이 있다. 학교교육과정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연간주제를 정하고, 학부모공동체의 연간학습프로그램을 계획해 학습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매번 단발성 연수진행이 아닌 학사일정과 함께(그래서 프로그램명이 '동행')하는 계획된 프로그램운영으로 학부모의 역량강화 주체성, 자아성취등의 향상. 무엇보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협력관계 발전을 기대한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 초등학교 학부모회
명칭	'동행' 학부모학습 공동체
주제	학부모 학습공동체운영으로 학사과정 이해
목적	• 난해한 학부모 연수 계획의 체계적 구성 •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협력관계 발전
활동 내용	학사일정과 동행하는 주제로 연간학부모활동을 계획, 연수프로그램운영

1)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
 - 본교 학부모중 학습과 실천에 가치를 둔 학부모들의 자율 참여
- 운영 방향
 - 학사일정(교육과정)과 동행하는 계획적 학습프로그램 운영
 - 학습결과물의 학생, 학부모에게로의 환원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구성이 난해한 학부모 연수의 체계적 진행
 - 학사과정 연계 공동체학습 진행으로 아이들과의 학습소통,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해 확대

- 학습을 통한 학부모 자아발전, 성취감 향상
- 학습을 통한 결과물로 학부모, 학생에게 재능기부

• 주요 사업 내용

※ [유의점]주제별 활동명과 내용이 상이함. 예시는 '탄소중립' 주제 활동. 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모 연수(적어도 한달전부터)전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 그 결과물로 학부모, 학생 연수 진행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이해	학교학사일정 알아보기	• 학교의 학사 일정 알아보기 - 학사일정중 주요사업알아보기 - 학사일정중 연중 주제 도출하기	
학습	탄소중립이란?	• 탄소중립? - 탄소중립을 알아보고 이해 - 물을 아끼는 설거지놀이(고체주방세제만들어보기)	★주제의 특성을 반영. 학부모연수(적어도 한달 전부터)전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 그 결과물로 학부모 및 학생 연수 진행
	제로웨이스트	• 제로웨이스트? - 가정에서부터 실천가능 찾아보기 - 나는 올바른 분리수거하고 있나?(분리수거표시찾기)	
	탄소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방법 -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생활을 찾아보기 - 플라스틱 줄이기 대체용품(자연소재라탄소품제작)	
	우리집 작은 지구구성하기	• 맑은작은지구 - 수경재배식물을 이용한 작은지구 구성하기	
실행 및 확산	학부모연수진행	• 플라스틱 줄이는 생활 - 학습공동체 연수중 한가지로 재능기부연수진행	

• 향후 활용 방안

- 공동체와 전문강사를 통해 학습한 학부모의 자체강사화
- 공동체 개발 강사로 정규과정외 참여
- 교육과정 연계 학습으로 인근학교와 교환수업 확대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운영영역	강사료	60%
교육영역	교육자료등 활용	20%
활동영역	활동운영비	20%

3-3. 중등 학부모 학습공동체

가. 마성 (마음 성장)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부모도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성장해야 한다. 현재 학부모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환기 자녀와 함께 학부모도 좋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녀의 진학과 성적 등으로 피로감이 높은 신입생 학부모에게 마음 성장 교육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확장과 새로운 경험을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1)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
 - 본교 학부모 및 양육자 중 자발적 신청자
- 운영
 - 장소 : 학교 및 마을 (공유학교 시설 이용) – 시간 : 주중 오전, 저녁, 주말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절차 구축
 - 학부모 개인의 마음 회복을 통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학부모	온전한 나	• 자기 이해와 인식, -명상, -체험 및 나눔 • 나의 변화된 모습 살펴보기, 앞으로의 다짐, 인성 전문성 방안	전문 강사
학부모 ↕ 자녀	평생친구 (토닥토닥 자녀와의 마음공감)	•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 가족관계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 자녀의 내면 탐색하기 • 전환기 자녀의 마음 이해하기, 들어주기 • 학령기 자녀 문제 • 사춘기 자녀의 상호작용 • 자존감 상승의 의사소통 방법 및 질문방법, 개방형 질문 • 문제해결 과정, 일차적 의사소통	전문 강사
학부모 ↕ 학부모	동주상구 (同舟相救) (소통 · 이해)	• 건강한 학교 참여를 하려는 학부모의 역할 •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 격려하는 말 표현하기 • 의사소통 방식, 규칙, 과정, 듣기 • 감정 · 지각 체계 · 기대 · 열망 말하기 • 마음 나누기 • 다양한 가족형태의 양육자에 대한 참여 독려	학부모 지원 전문가 및 학부모 전문가 초빙
학부모 ↕ 위기 학생	숲과 같은 마음 (마음보살핌) 동주상구 (同舟相救)	• 학습 결손, 학습 격차, 관계 결핍, 정보격차, 경제적 결핍 등 위기 학생에게 재능기부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방안 모색 • 용서 · 수용하기 • 위기학생 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 현장에서 지원 인력 절차 방안	학교 관리자 및 학생 인권 부장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학부모 ↓ 교사	동심동덕 (同心同德): 존중 · 협동 (핵심적인 파트너)	- 칭찬 나누기 - 봉사활동 및 재능 기부 - 갈등 해결을 위한 대처 방식 - 건강한 거리 두기 -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상상력 발휘 - 의견 차이에도 협력하는 가치판단 기준 제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부모 ↓ 자녀 ↓ 교사	대화의 꽃 (말하는 대로 이루어 진다) 일심동체 (一心同體)	- 라포 형성 - 상대를 배려하는 ‘눈높이 말하기’ - 존중받기를 바라는 말 - 말투가 인성이다- 책 모임 - 상황별 대화법- 경청 태도 방법 - 적극적 경청 <u>역지사지</u> 관점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부모 ↓ 학생 ↓ 교사 ↓ 지역 사회	대동단결 (협력공동체의 변영)	- 지역사회 탐색 및 체험 공유 - 지역의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 직접 찾아다니며 강의 의뢰 -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회의 - 협력적 태도 함양 및 인간 존엄 교육 -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의 연대성 · 공공성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교육의 한계인 학교 제도, 공간의 부족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	지역 사회 교육 기관 및 센터와 연계

• 향후 활용 방안

- 학부모와 교사의 동반 성장을 지지하는 학교 문화 조성
- 체계적인 학부모 역량개발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력 향상
-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자녀 교육 및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제고로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 직장 생활 학부모 및 교육 소외 계층 학부모에 대한 학습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증가
- 개인의 공감 능력 향상과 학교에서의 공감 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학교 구축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운영영역	필기구 및 다과, 장소, 용품, 물품, 교재	35%
교육영역	전문가 초빙	35%
활동영역	체험, 탐방	30%

나. '대화의 꽃' 말하는 대로 이루어 진다 (안)

유아 시기 부모로서의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의사소통과 생활지도,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영위,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공동체로서 소통 역량을 기르는 자발적인 학부모 학습공동체, 육아스트레스를 덜고 심신의 건강을 살피며, 학습을 통해 부모의 자기 성찰을 하는 기반을 다져 학교와의 신뢰를 쌓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공동체로 운영됨.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중 · 고등학교 학부모회
명칭	대화의 꽃(말하는 대로 이루어 진다)
주제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공부'
목적	• 자녀와의 대화법 • 하브루타 마음 대화 •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활동내용 요약	• 또래 자녀 학부모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 기능

1) 학습공동체 개요

• 소통 기능

- 학부모 혼자만의 고민인 아닌 또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
- 학부모의 온품학습공동체 참여 활동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활동임을 자녀가 인식하여 자녀 또한 학교생활을 더 잘하도록 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 학부모도 주변 학부모와의 관계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
- 학부모가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많이 파악하는 계기가 됨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같은 학교 학부모 자원 활용은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는 방법알기
- 주변환경 조절 능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자녀교육 관련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
- 온품학습공동체 정신은 '나는 자녀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며 자녀를 학부모들과 함께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대화의 꽃	• 하브루타와의 만남 - 실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자존감을 키운다. - 가르치고 싶은 부모, 대화하고 싶은 아이 - 유대인 부모는 '질문'으로 답한다. - 완벽한 부모보다 대화하는 부모가 낫다. -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대화 - 가족 간의 관심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관심으로 부모로서의 삶에 새 지평을 엮)	
	• 부모교육프로그램 -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세우기 - 가족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가계도 탐색, 가족규칙을 통해 원가족의 영향과 자녀에게 전수되는 패턴 이해 - 자녀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는 기대 다루기 - 부모와 자녀의 빙산 탐색을 통해 감정, 생각, 기대, 열망을 알아내고 수용 -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 배우기 - 자녀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성장발달을 위한 적절한 돌봄 -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기, 형제갈등, 경제교육등 - 사춘기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배우기 - 또래 압력, 성교육, 인터넷에 대한 문제 다루기 - 자존감 up! 의사소통 방법 배우기(공감적 반영, 의사소통 기본태도, 감정 읽어주기, 격려, 부모 자신의 화조절) - 부모 자신의 감정과 기대 표현하기, 자녀와 갈등 해결하는 방법 배우기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공부	-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 - 부모의 존댓말 - 상대를 배려하는 '눈높이 말하기' - 말실수를 줄이려면 : 늘 성찰하고, 지속적 학습 - 갈등해결을 위한 대처방식 : 갈등 해결 위한 기본적 태도를 배우기, 문제와 갈등상황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방법 및 수정해야할 태도 학습 및 훈련 - 분노해결을 위한 대처방식 : 분노를 일으키는 왜곡된 신념, 분노감정에 대한 규칙 찾기, 분노감정의 해결 위한 효과적인 방식 찾기 - 용서하기와 수용하기 : 용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대방 수용하기에 대해서 이해 갖기	
명상	- 온라인 앱과 명상노트를 작성하고 실천나눔 미팅 진행 - 부모로 성찰하며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음 -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비워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 얻기 - 가려져 있던 본성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세상의 이치, 삶의 의미를 깨달음	

• 기대효과

- 가정내 하브루타를 실천으로 이야기꽃이 피고 생각 근육 성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하브루타 중심의 언어사용으로 존중 문화 조성
-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감성육아 가능,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
- 가정 내 질문 및 토론 문화 조성 기대
-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로 자신 및 가족 문화의 변화로 긍정적인 삶의 전환 모색

- 자녀의 말문과 생각을 여는 기틀을 마련(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애착과 관계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운영영역	강사 수당 및 다과	40%
교육영역	관련 책 구입	30%
활동영역	활동 준비 용품	30%

3-4. 아버지 학습 공동체

가. ‘놀아주마’ 아버지 학습 공동체 제안

최근 아빠들의 학교 교육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아침 교통봉사, 수업 참관, 학부모 바자회 등 주로 여자 학부모들이 참여했던 영역에서 뿐만아니라 방과 후 학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아빠들의 참여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심시키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학교 참여에 적극적인 남자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동육아나 유치원 학부모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초등학교까지 연장시켜 남자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부모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초등학교
학습공동체 명칭	‘놀아주마’ 아버지회
학습공동체 주제	아이와 아빠랑 함께하는 놀이 한마당
학습공동체 목적	• 아빠들의 놀이학습공동체를 형성을 통해 학부모 방과 후 학교교육참여 활성화
활동내용 요약	• 아빠들이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익힌 후 주중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한마당을 열어 학교공동체를 더 단단하게함

1)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

- 단위학교 학부모회에 남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놀아주마’ 아버지회 구성
- 학년 구분 없이 공개 모임을 통해 남자 학부모 10명~20명으로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 운영 방향

- 학부모회 행사, 방과후 교실 및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놀이학습공동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기 위해 연간 학부모회 사업에 반영
- 방과후 (주중, 주말, 방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활동
- 전통놀이, 사계절 자연놀이, 스포츠 및 체육 등 다양한 공동체놀이 중심으로 운영
- 놀이 자료 수집, 놀이 관련 책읽기, 놀이 방법 및 규칙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학습 진행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아버지회의 자발적인 놀이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공동체적 배움과 성장 지원
-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통해 남자 학부모들이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부모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통해 학부모, 학교,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놀아주마 아버지회 결성	• 학년 단톡방 및 현수막을 통한 회원 모집 • 사업별 담당자 지정 및 임원진 구성 • 학습공동체 연간 사업 계획 수립 • 놀아주마 아버지회 결성 및 사업 홍보	2월
학교와 학부모 행사에 공동체 놀이 지원	• 어린이날 기념 운동회 때 가족 놀이 마당 운영 • 학교 축제 때 학생 놀이 체험 부스 운영 • 학부모회 주관 행사 때 놀이 부스 운영	5월/10월/ 연중
주말 스포츠 교실	•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 축구 교실 • 방학 중 배드민턴 교실 • 여름 물놀이, 겨울 썰매 타기	토요일/ 방학
교육자원봉사	• 방과 후, 방학 돌봄교실 자원봉사 활동 • 사업별 담당자 지정 및 임원진 구성 • 학습공동체 연간 사업 계획 수립	연중
놀이학습 공동체 운영	• 놀이 관련 서적 구입 및 자료 수집 • 놀이 방법 및 규칙 연구, 실습 • 정기 독서 모임	분기별 1회
연중 활동 평가 및 반성	• 연간 활동 반성 및 평가 • 놀이 방법 및 규칙 연구, 실습	1월

• 향후 활용 방안

- 아버지회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방과후 교육과정의 다양화 풍성화
 - 학부모회와 상시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
 - 학교 방과후 공동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부모 자치 실현
 - 학부모회 자율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자치 실현
 -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기반 조성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항목	예산 내역(안)	비고
운영영역	놀이 교재 구입비	100,000원(20,000원*5권)	30%
	협의회비(간식 및 다과)	200,000원(50,000원*4회)	
교육영역	공동체 놀이 초청 강사료	250,000원(250,000원*1회)	40%
	연수비(자체 워크숍)	150,000원 (50,000원*3회)	
활동영역	홍보 및 출판비	200,000원(100,000원*2회)	30%
	놀잇감 기자재 구입비	100,000원(100,000원*1회)	

나. ‘마을 담은’ 아버지 학습공동체

마을은 교재의 보물창고이다. 학교 주위를 둘러싼 마을에는 보물 같은 배울 꺼리들이 넘쳐난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빠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 이곳저곳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선다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남자 학부모들이 나서면 머지않아 온 마을이 나설 것이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초등학교
명칭	‘마을 담은’ 아버지 학습공동체
주제	아빠랑 함께하는 우리 마을 탐사
목적	• 마을 속에 있는 보물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는 학습을 통해 방과후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활동 내용	•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마을의 전설, 문화유산, 돌레길, 산업 지도, 지명 유래, 유·무형 문화재 등 다양한 마을 보물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마을탐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마을보물지도 그리기

1) 학습공동체 개요

• 구성

- 단위학교 학부모회 아래 남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마을 담은' 아버지회 구성
- 학년 구분 없이 공개 모집을 통해 남자 학부모 10명~20명으로 학습공동체 운영

• 운영 방향

- 학부모회 행사, 방과후,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기 위해 연간 학부모회 사업에 반영
- 학교 도서관, 학년 교육과정, 지역 박물관, 지역 사회 등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활동
- 교과 학습, 방과후 학습, 돌봄 등 학교교육활동과 연계 추진
- 마을 인적 물적 자원 수집, 마을 보물지도 그리기 등 정기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아버지회의 자발적인 마을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공동체적 배움과 성장 지원
-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이 마을교육을 통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학부모의 마을교육 활동을 통해 학부모, 학교, 학생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마을 담은' 아버지회 결성	• 학년 단독방 및 현수막을 통해 회원 모집 • 사업별 담당자 지정 및 임원진 구성 • 학습공동체 연간 사업 계획 수립 • '마을 담은' 아버지회 결성 및 사업 홍보	2월
방과후, 방학, 주말 활용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경기이룸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연계 추진 •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연중
(사회, 역사) 교과교육과정 연계	• 3학년 지역사회교육과정 및 지역교과서 연계 운영 • 5~6학년 역사 및 진로 탐색 교육과 연계 추진 • 지자체 교육문화국과 협력 증진	연중
마을학습공동체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서적 구입 및 독서 토론 • 마을보물지도 그리기 자료 수집 및 실습 • 현장학습 기획 및 사전 답사	분기별 1회
연중 활동 평가 및 반성	• 연간 활동 반성 및 평가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모색	1월

• 향후 활용 방안

– 아버지회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구축

- ▶ 학부모회와 상시적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실천
- ▶ 학교 방과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부모-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방과후 교육 활성화

- ▶ 교육돌봄, 방과후 학교에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학부모교육자치 실현
- ▶ 교사 중심의 학교 정규교과 교육과정과 학부모·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 조성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세부사업명	항목	예산 내역	비고
운영영역	마을교육공동체 교재 구입비	100,000원(20,000원*5권)	30%
	협의회비(간식 및 다과)	200,000원(50,000원*4회)	
교육영역	마을교육공동체 초청 강연비	250,000원(250,000원*1회)	40%
	연수비(자체 워크숍)	150,000원 (50,000원*3회)	
활동영역	홍보 및 출판비	200,000원(100,000원*2회)	30%
	마을탐사를 위한 기자재 구입	100,000원(100,000원*1회)	

3-5. 학교밖 학부모 학습 공동체

가. 학부모 '나비질 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임에도 학교폭력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학교의 일과 책임으로 한정한다. 대다수의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에 관련 되기 전에는 타인의 일로 여기고 비난하지만 이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두 입을 모아 학교폭력을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학교폭력은 사회의 여러 문제로 인한 현상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은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사회문제를 바르게 조명하고 현상으로써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00시 초,중,고 학부모
명칭	학부모 ¹³⁾ 나비질 하다
주제	학교폭력의 바른 이해와 적용
목적	• 학교폭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사회적 공감과 연대 형성에 앞장서며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함
활동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 교육, 사례를 통한 토론과 성찰, 공유와 실천

13) 나비질은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를 날리려고 나비가 날개 치듯 키를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말로 나비효과를 연상하게 하는 말

1)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에 동기를 둔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
- 지역기반 초, 중, 고 학부모 온·오프라인 모임
- 학습활동을 넘어 실천하는 학부모 모임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학교폭력의 올바른 이해
- 갈등과 폭력상황에 대처하는 바른 학부모상 구축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주도와 예방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동 내용	비고
질문과 배움이 있고 교육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 학폭법? 학교폭력예방법/ 운영 매뉴얼 -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 학교폭력의 영향 -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성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장학사 및 전문가
	학교폭력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 응보주의와 회복적 정의는 무엇인가? - 응보주의와 회복적 정의 - 예방과 자녀에게 도움 되는 관점	회복적생활 교육전문가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는가?	•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 - 공감과 동조 - 진정한 사과 - 용서와 화해 - 존중, 배려, 협력, 책임 • 학교와 사회의 불신 - 필요를 채우는 회복 없는 피해상황 - 반성 없는 억울함의 가해상황	소통 교육전문가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하는가?	• 회복적 문화 꿈꾸기 -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회복적 실천 • 회복적 공동체를 향한 도전 - 존중과 신뢰로 함께 성장, -용서와 치유의 패러다임	써클활동 (자원봉사)
깨우침이 있는 나눔	공유하는 가치!	• 핵심 가치 찾기 - 가치카드 활용 프로그램	써클활동 (자원봉사)
	토크 콘서트!	•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례 살펴보기 - 배움적용, 질문과 토론 - 성공없는 실패의 대응/ 합리적 선택 - 간접체험과 공감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장학사 및 전문가
	북 콘서트!	• 학교폭력 관련 도서 저자와의 만남 - 학교폭력 관련 도서 읽기 - 사전질문 이벤트	도내 학교폭력 저자
	배움과 깨움!	• 배움과 깨우침 나누기 - 학습공동체의 역할	써클활동 (자원봉사)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함 께 하 는 실 행	함께 해야 할 일!	• 평화로운 문화조성에 기여 - 부모No! 학부모Yes! - 내아이만No, 우리아이Yes!(함께 돌보며 함께 성장) • 회복적 생활 교육 - 강한처벌No 재발방지와 피해회복Yes(회복을 위한 선택)	학습공동체
	준비~/ 레디~	• 교육공동체의 독립된 주체로서 학부모 정체성 - 올바르게 학교폭력을 대하는 학부모 상 - 공연 콘텐츠 제작(글,카드뉴스,팟캐스트,캠페인,영상..) • 학년별 학부모 대상 맞춤 콘텐츠 제작 - 저학년의 학교폭력, 어른싸움의 학교폭력.... • 지역 및 학부모 네트워크 협력으로 참여 유도 - 지역사회 협력 홍보 - 학부모네트워크 이용 지역 내 학교 홍보, 확산	학습공동체 전문가 감수
	땡! / 액션!	• 콘텐츠 공유 - 평화적 학부모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협력으로 회복적 마을 공동체 조성	콘텐츠 공유

• 향후 활용 방안

- 학습공동체와 학교

▶ 학년별 학부모 대상 맞춤 콘텐츠 공유로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의 기회 마련

- 학습공동체와 지역

▶ 현상으로써의 학교폭력 콘텐츠 공유로 지역사회의 공감과 연대의 기회 마련

• 기대효과

- 학교폭력의 바른 이해를 통해 학부모로서의 태도를 성찰하고 회복적 관점을 적용해 학교폭력의 예방효과 기대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소요예산 (1,000,000원)	비고
운영영역	- 장소사용 - 도서구입	- 130,000(10,000*13) - 170,000(17,000*10)	30%
교육영역	- 학교폭력 전문가 강연*3회 -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강연*1회 - 소통교육 전문가 강연 - 저자와의 만남*1회	- 500,000(100,000*5) 전문가 강연 5회	50%
활동영역	- 콘텐츠 제작, 공유	- 200,000 (영상콘텐츠 장비 대여 및 재료)	20%

나. 학부모 ‘숲정이’ 학습공동체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민주교육은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부모와의 민주적 관계는 무시되며 학부모의 참여는 매우 부정적이다. 수원지역의 수원화성 가치계승 교육인 행복수원과도 일치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이룸으로 학부모에게는 질 높은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 참여의 경험을 통해 학부모 정체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간의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향토문화와 역사, 타지역과의 협력, 멘토활동으로 확장 가능하다.

온품 학습공동체 계획서	
소속 단체명	수원시 초·중·고등 학부모
명칭	학부모 ¹⁴⁾ 숲정이
주제	우리 지역 문화재 전문 교육 및 교육과정 지원
목적	• 학부모 참여 인식 전환, 참여 활성화
활동 내용	• 수원화성에 대해 지역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참여 및 지원

1) 학습공동체 운영방안

- 학부모의 자발적인 지식 탐구 및 구성
 - 평생학습 시대 學부모는 배우고 나누는 사람
 - ▶ 교육공동체 간의 유대와 상호작용 기반으로 공유

2) 학습공동체 활동 계획

- 사업목적
 -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
 -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 마련
 - 타지역 확장 및 교육공동체 간의 선순환 기회 마련
- 주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교육	형식을 알면 이야기가 보인다	• 수원화성의 가치와 의미 –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역사적, 건축적 의미 • 진행형인 정조의 꿈 – 현재의 수원과 화성 • 기록문화의 의미 – 성설, 도설, 의궤, 청림 • 화성행차 – 기록문화의 재현 – 과거의 길과 현재의 길 • 화성人 – 정조, 다산, 채제공, 영조, 사도세자, 혜경궁.....	지역 내 전문가 강의, 강연

14) 한 동네에 이웃이 되어 사는 구역 안의 우리말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비고
탐구	아는 만큼 보인다	• 왜 필요한가? – 교사연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해 – 교사연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 학교급, 학년, 과목, 단위, 기관별 이해 • 무엇이 필요한가? – 학교급, 학년, 과목, 단위,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 – 활동지 활용 대비 학부모 수원화성 탐방 – 기능별 학생자치회 지원(동아리 활동) – 지역내 특성화고 활용 콘텐츠 제작 • 지역내 향토 문화로 확장 – 수원지역 3.1운동, 지명의 유래, 문화유산, 향교 • 타지역 연계 및 멘토 – 윤건릉, 용주사	독서, 연구회 교사와 함께 연구활동 샘플제작
나눔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 프로그램 예시 – (유아·초등저학년)활동지, 반차도 북아트, 반차도 텀블러 – (초등중학년)오방색과 수원화성, 수원화성 건축모형 제작 – (초등고학년) 화성행차 경로, 의미, 의궤등 – (중등)진로,언어,과학,미술과목 및 자유학기제 프로젝트수업 – (고등)진로진학,언어,미디어,고교학점제지원 – (역사크리에이터) 선배가 들려주는 수원화성 이야기 (특성화고 디지털, 미디어학과-영상,게임,어플,콘텐츠 제작) • 가정에서 함께 하는 수원화성 탐방 –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유·초등 저학년, 초등 중학년 활동지	교육기부

• 향후 활용 방안

- 학습공동체와 학교
 - ▶ 교육과정별 맞춤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학습공동체와 지역
 - ▶ 문화유산해설, 프로그램리더등 인적자원 마련
 - ▶ 타 지역으로 확장
- 기대효과
 - ▶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 교육 실현

3) 활동 예산 편성 내역 (예시)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용	소요예산 (1,000,000원)	비고
운영영역	• 현장답사 입장료 • 프로그램 개발 학생 간식지원	– 300,000 (30,000*10)	20%
교육영역	• 지역 내 화성 전문기관 전문가 강연 • 현장 답사 • 관련 도서 구입	– 500,000 (전문가 강연*5)	50%
활동영역	• 프로그램 개발 장비, 재료	– 200,000	20%

V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은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학부모 동아리는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촉진하고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학생교육, 학교교육과 연계되지 못하고 학부모 복지 차원의 교육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학교가 행정관리체제라는 고전적 조직개념에서 벗어나 학습을 조직화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했던 것처럼 학부모의 자생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칭)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의 학습주제는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나 자녀교육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주제별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 스스로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단위 학교 교원등의 인력을 초청하여 학습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기존처럼 미리 짜놓은 연수에 학부모가 참여하게 하는 방식은 만족도도 낮고 다양한 학부모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삼아 23년도 학부모교육정책워킹그룹 3팀은 기존 학부모 동아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학부모학습공동체를 제안하였고, 자녀의 생애주기별 학부모학습공동체의 운영 제안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별도의 아버지 학습공동체의 사례와 학교밖 학부모학습공동체를 함께 담았다.

수백 가지의 좋은 개발 사례를 제안하더라도 수요자의 요구, 물적·인적 자원의 기반 조성, 교육공동체의 인식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학부모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상향식 학부모정책 추진과 교육공동체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학부모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로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교참여를 시작하였고, 학교참여를 넘어 학부모 자치를 지향해야 한다. 학부모의 자주적인 인식이 조성된 후 학부모학습공동체를 출발시킬수 있으며, 학습의 조직화로 부모로서 학부모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성장기반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등의 영역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학부모회의 원활한 학교참여 촉진을 위해 학부모회와 학교 주요단체인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력적인 소통과 연계체제 구축이 기반이되어야 하며, 현재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역할 강화를 위해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수혜대상을 전폭 확대하고, 적극적 홍보, 학부모교육 참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자발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학습공동체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대를 도와 지역 교육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중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습공동체의 조직 및 실행을 돕고, 학생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한다.

둘째, 학부모교육 선순환을 위한 민·관·학(지역-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학부모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현행 학부모 역량 강화교육이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방식을 넘어 교육내용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교육과정을 함께 고려해나가야 한다. 학부모학습공동체를 진행할 수 있는 민·관·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공유학교, 평생교육기관등 지역과 협력하여 모임의 장소나 프로그램등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학부모 참여 활동(재능기부, 보조교사, 마을교사, 유휴교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민관학 협업체제의 구축으로 자생적 학부모학습공동체의 실천을 위한 꽃을 피워야 한다.

셋째, 학교 내 학부모-교원의 소통구조 강화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제아무리 학습력을 높이며 학습공동체를 운영해도 학부모-교원간 소통구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학부모와 교원 간의 의사소통 채널 확대가 학부모, 교원 모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학교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은 참여 학부모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는 동시에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업무부담 가중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는 학교의 조직문화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사들도 학생 생활과 교우 관계, 학생 건강 등에서 학부모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로부터 가정으로, 교사로부터 학부모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소통문화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학부모 참여에 대한 수용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학교자치의 토대를 갖추어 학생-교사, 학생-학부모, 학부모-교사, 교사-교사 간의 대화와 소통문화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일반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으로 전문가 인력풀과 충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습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현장감 높은 검증된 전문가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이를 연계할 학부모학습공동체 분야별 우수강사 인력풀이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우수사례, 지역연계 체험처, 예산사용등의 매뉴얼, Q&A등이 탑재된 (가칭) '온품학부모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학습공동체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충분한 확보로 예산 사용을 돕고, 기존 학습동아리에 비해 운영 방식 또한 자율에 기반하여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사용 방식 또한 '온품학부모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담당교원의 부담을 덜고, 각 학습 공동체 리더가 직접 신청하여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 한다.

다섯째, 학부모학습공동체의 우수한 사례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의 기회를 위한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는 매년 학부모 참여 우수학교

사례를 공모로 선정하고 있다. 온품 학부모학습공동체 또한 별도의 분야로 추가하여 우수학습공동체를 인증한다. 우수학습공동체는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독려한다. 일년 단위로 생성되었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명맥이 끊긴 형태가 아닌 전통이 되어 그 학교 학부모들이 수호하며 명맥을 잇는 아름다운 학습공동체로 지속되도록 한다. '온품 학부모학습 공동체 페스티벌'은 포럼이나 공감토크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포럼 연극, 체험 부스 운영, 부스별 '사람책'을 만나 소통하고 질의 응답등을 나누며 운영하는 방식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부모회를 직접 운영해 온 학부모 리더들과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간 현장에서 노력해온 교원들이 함께 일궈낸 연구이다. 제안된 9가지의 연구는 학부모이자 학부모 전문가로 살아온 5인의 현장경험을 통해 제시한 자료이다. 각 학교마다 지닌 학교의 특성, 예를 들어 학교급, 리더 및 학부모 담당자의 열정, 교원 및 학부모들의 관심, 학생 특성, 학교의 인문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 저마다 다르게 실행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보더라도 기존의 학부모 동아리라는 개념은 교육이란곳에 학부모가 소외된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학부모가 교원과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직업인과 비직업인?)고 볼 수도 있지만 학부모 자신이 동아리라는 성격에 안주하고, 손에 물품을 획득하여 돌아만 가는 원데이 클래스 정도의 학습을 원한다면 학습 동아리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형태나 문화센터는 다를바가 없게 된다.

학부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 또한 부모로서 나의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우리들의 사명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감지하고, 교육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고,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여 함께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학교의 기능을 더 이상 지식교육을 담당하는 제도적 특징에만 한정시킬 수 없다. 학교의 전문성이 지식교육 중심의 교과적 전문성에 제한되지 않고 인성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전문성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학부모와의 협력은 필요하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인 학생들의 삶의 장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 혼자 해결하기 난해한 일들을 동료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동성이 많은 작금의 시대속에 자녀의 변혁적 역량(예측-실행-성찰)을 길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며 그속에서 자신의 소속감과 능력,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제 나의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잘 키워나가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자.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기에 100년 넘은 스웨덴의 '15)스터디 서클'이 가난한 스웨덴을 일으켰던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을 기대해 본다.

15) 100년 넘은 '스터디 서클' 가난한 스웨덴 일으켜(2013.08.09.). 중앙일보

[기사제목]: 100년 넘은 ‘스터디 서클’ 가난한 스웨덴 일으켜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다.”

스웨덴의 전 총리 올로프 팔메(1927~86)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스터디 서클은 스웨덴인에게 합리적 분석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줬다. 이것이 스웨덴의 사회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북유럽의 ‘스터디 서클’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900년대 초,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였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나왔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고등교육은 귀족층에게 한정됐다. 1902년 교육학자이자 정치인인 오스카 올슨(1877~1950)이 ‘스터디 서클’이란 말을 처음 만들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부 모임, 생활개선 모임을 조직했다. 1914년 ABF라는 총괄조직이 생겨났고 스웨덴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스터디 서클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확산됐다. 1905년 스웨덴에서 분리 독립한 노르웨이, 1917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도 이 제도를 적극 수입했다.

스터디 서클은 ‘싸게’ ‘자발적으로’ ‘모든 멤버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해진 형식이나 의무는 없으며 리더는 팀 내에서 정하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는 인문학 공부모임과 비슷한 성격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3.08.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296790>]

참고문헌

- 강원국(2021).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웅진지식하우스.
- 김혜경(2017). 하브루타 부모 수업. 일상에서 온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하브루타 생각대회. 경향BP.
- 최우성(2023). 학교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성안당.
- 이언 레슬리(2021). 다른의견. 어크로스.
- 강대중 외(2022). 대한민국 학부모. 학이시습.
- 김기수외 (2019). 학부모와 공교육:학부모 담론의 시작. 교육과학사.
- 김성천, 김요섭, 김인엽, 김진화, 김혁동(2019). 학교자치2. 테크빌교육.
- 김기수, 김병준, 김현정, 황성희(2021). 학부모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 교육부 · 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 교육. 파주:교문사.
-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2023). 2023 온품 학부모교육 추진 계획.
- 오재길 · 임선일 · 진숙경 · 이병곤 · 이은경 · 조경민(2016). 학부모교육주체화방안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 흥. (2005). 지식경영의 필요성과 성공전략, 「지식관리 토론회 자료집」, 행정자치부.
- 임현화(2022), 대한민국 학부모 학부모에서 학부모회 네트워크의 길을 탐색하다. 2022 워킹그룹운영보고서.
- 김혁동(2020),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의 첫걸음, 제12차 한국학부모학회 학술대회.
- 류방란, 김경애, 임후남, 이성화, 양희준, 황지원(2015).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장미라(2021).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 보고_경기B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기평생학습관 학부모학습공동체(2020)예시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89
- 충남-학습공동체(2020) 학부모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경남-함안행복교육지구센터.(2022). 함안-학교밖 행복한 학습공동체 공모 계획

제2장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 ① 유치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달빛유치원)
- ②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용인백현초등학교)
- ③ 중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보평중학교)
- ④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화성나래학교)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아이들의 꿈과 웃음을 지키는 달빛지기 학부모회와의 행복한 동행

달빛유치원



1 우수사례 개요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1) 학부모회 운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021학년도 9월 개원으로 역사가 짧은 학부모회
- 학부모총회, 대의원회, 연수 운영 등 필수 사항만 형식적으로 운영
- 3년차 학부모회 임원들의 열정에 비해 그 외 학부모들의 소극적 참여
- 학부모 간 의견 나눔의 장에 대한 요구
-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소극적 자세

- 학부모회장과 유치원장의 수용적이며 혁신적인 리더십 발휘
-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 실시를 위한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 학부모 간 소통 공간 마련
- 공감과 소통으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교육적 공감 확보

2) 추진 과정

- 2023학년도 3월 19일 3기 학부모회 출범
- 1회 대의원회의 시 '형식적인 학부모회 활동보다는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부모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 공감하며 함께 발전하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 2023학년도 달빛유치원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학부모회 임원단 협의회의 '학부모회 분과 운영계획' 자발적 수립
- 달빛유치원 학부모회 명칭 공모전 실시
- 학부모회장과 유치원장의 수용적이며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탄생

나. 추진 목적 및 방향

목 적	학부모와 유치원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발전하며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추진 과제	첫째, 유치원-학부모회, 학부모-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의 문화 조성
	둘째,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셋째, 열린 유치원으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3 세부 추진 내용

가. 유치원-학부모회, 학부모-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의 문화 조성



“소통을 위한 창구가 필요해요”

【학부모의 요구】

- 2021년부터 유치원-학부모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학부모회 임원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결과 유치원과 학부모회와의 소통에는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학부모-학부모 간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
-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학부모-학부모 간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에 대한 요구

【추진 과정】

-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학부모 서포터즈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별', '분과장별', '전체', '학부모회-유치원' 등의 카톡방 개설
- 기타 학부모와의 의견 청취는 이알리미 어플 활용

- 【추진 내용】**
-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별, 분과장별, 전체, 카톡방을 개설
 -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분과별 일정조정 및 스마일 선생님 배정
 - 학부모회와 유치원 간 긴밀한 연락체계 운영
 - 전체 학부모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e알리미 어플 활용
 -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에 다녀온 학부모 회장의 제안으로 **학부모회 명칭 공모전** 실시
 - 원하는 학부모교육 수요 조사
 - 학부모회 연수 신청
 - 뉴스레터를 통해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일정 안내
 - 정해진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 일정을 뉴스레터 하단 ‘기타’란에 안내함으로써 전체 학부모에게도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의 역할과 일정에 대해 안내
 - 학부모 소모임 운영
 - 학부모회 임원단 모임
 -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교사-분과장 협의회 실시
 - 학부모 서포터즈 분과별 소모임 실시

카톡방 개설 스마일서포터즈 단톡방/유치원 소통방	e알리미 의견 청취	‘뉴스레터’ 스마일서포터즈 안내
		
학부모회 명칭 공모전	학부모 서포터즈 분과장-담당업무교사 소모임	
		

- 카톡방 개설 및 e알리미 의견청취, 뉴스레터 안내 등으로 공감과 소통의 문화 조성에 힘씀
- 학부모회 명칭 공모전에서 **‘달빛지기 학부모회’**가 선정됨.
 - 전체 학부모의 열화와 같은 참여로 27개의 명칭이 제출되었고, 그 중 임원 및 교원 협의체 협의 결과 4개의 후보를 선정한 후, 학부모 총 투표를 실시하여 **66.1%**로 **‘달빛지기’**가 선정됨.
- ※**달빛지기: 달빛처럼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지지하며 지킨다는 의미**
 - 명칭 공모전에 당선된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달빛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참가하게 되었다’**며 당선 소감을 전함.
 - 당선 상품으로 가족 이름 티셔츠를 수여함.
- 달빛지기 학부모회는 임원단 소모임, 서포터즈 분과장 소모임, 분과 소모임 등을 가져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함.

나.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우리가 간다!

【학부모의 요구】

- 1회 대의원회의 시 '형식적인 학부모회 활동보다는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부모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 학부모회 임원단 소모임에서 분과별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에 제출

【추진 과정】

-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공감대 형성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선정 협의회 (학부모회 임원단, 교무부장, 업무담당교사)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모집 및 발대식 (2023. 5. 10.)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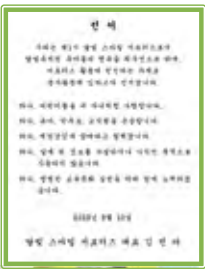
【추진 내용】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 선정 및 발대식
 -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행사보조, 등하교 안전 및 유치원 주변 미화, 급식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45명의 학부모가 학부모 서포터즈를 희망함에 따라 ①교육행사 분과 ②환경미화 분과 ③캠페인 분과 ④SNS홍보 분과 ⑤재능기부 분과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됨.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발대식 당일 신청인원 중 38명이 참여하여 '위촉장 수여', '원장환영사', '선서식', '분과소개 및 유의사항', '분과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으로 진행함.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발대식은 '경기일보(5/17)'와 '김포신문(5/15)'에 보도됨.
 -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운영
 - ①교육행사 분과: 외부현장체험지원(보름산미술관, 숲체험 지원), 달빛 마켓 지원, With 플리마켓 지원, 안전 플레이 데이 지원
 - ②환경미화 분과: 유치원 꽃밭 조성 및 화단 돌고르기 작업 실시
 - ③캠페인 분과: 달빛 스마일 봉사단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 캠페인' 실시, '환경보호 캠페인'(예정)
 - ④SNS홍보 분과: SNS 개설(dalbit_preschool 인스타그램) 및 운영, 달빛유치원 교육이해 및 홍보 진행
 - ⑤재능기부 분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과학놀이, 동화구연 재능기부 실시
- ※ 1학기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내용이 '경기열린신문(7/19)' 보도됨.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발대식 (위촉장수여, 선서식)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분과 협의회	보도자료 (발대식5.15. / 실적 7.19)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교육활동 지원 분야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감이 컸음.
 - 해당 학급 학부모가 지원할 경우, 유아들의 동요가 예상되며, 교사를 평가하는 일이 있을까 우려하여 기획회의, 교사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동학년 학부모나, 해당학급 학부모가 지원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여 공감대 형성
- 발대식 때 교육활동 지원 시 유의할 점이나 **선서문 낭독**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활동 시에도 **‘이렇게 도와주세요!’와 활동 대장을 비치**하여 교육활동 지원
- 유치원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한차례 혼란을 겪은 후, 일정은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주 전에 학부모와 일정 조율**
-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dalbit_preschool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였으며,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한 학부모의 유아 사진만 탑재함**
- 유아들은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 어머니들을 **‘스마일 선생님’**으로 부름.
- 현재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위해 고민 중이며, 유아의 행복을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음.



다. 열린 유치원으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유치원에 놀러오세요!’ 언제나 열린 유치원

【학부모의 요구】

- 코로나 19로 인해 닫혀있던 유치원이 2022년부터 열리면서 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있음.
- 2022학년도 급식 모니터링과 검수 모니터링을 학부모회 임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검수 모니터링 참여를 원함.

【추진 과정】

- 학부모 총회 및 다양한 학부모 연수 실시
- 자유로운 참여신청을 통한 With 플리마켓 운영
- 다양한 학부모 참여의 날 운영 (참관수업, 특성화 공개주간, 달빛 스페이스센터 운영)
- 급식/검수 모니터링 요원 모집 및 모니터링 실시

【추진 내용】

- 학부모 총회 및 다양한 학부모 연수 실시
 - 2023. 3. 19. 3기 학부모회 출범을 기점으로 대의원회 2회, 학부모 연수 3회 실시
 - ‘성교육 연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나에게 맞는 퍼스트 컬러 진단’ 워크숍 실시
- ‘지구를 사랑하는 With 플리마켓’ 운영
 - ‘학부모와 함께 하는 With 플리마켓 참여신청 결과 총 61가족 참여
 - 참여 가족이 많아 2일로 나누어 플리마켓 진행 (7/4 ~ 7/5)
 - With 플리마켓을 통해 나눔활동과 재활용 및 재사용의 중요성을 경험
 - 먹거리류, 의류, 장난감류, 문구 및 도서류, 악세사리류 등 다양한 마켓이 열림.
 - ‘달빛지기 학부모회’에서는 에코 OX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달빛 쿠폰을 받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존 운영 (팝콘, 슬러시, 솜사탕)
- 다양한 학부모 참여의 날 운영
 - 1학기 학부모 참관수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공개주간 운영
 - 2학기 ‘미래로 가는’ 달빛 스페이스 센터 운영
- 급식/검수 모니터링 실시
 -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검수 모니터링을 신청받은 결과 4명의 검수모니터링요원과 55명의 급식(점심) 모니터링 요원 참여
 - 아침 일찍 급식 식재료 검수를 함으로써 식재료의 상태 및 급식실 위생관리 상황 검수
 - 점심 급식 모니터링을 통해 급식 현황과 실태, 급식의 맛과 양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 실시

- 학부모회에서 연수를 실시할 때는 학부모들이 듣기를 원하는 연수에 대해 먼저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준비하여 실시
(‘성교육 연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나에게 맞는 퍼스트 컬러 진단’)

• 학부모의 활발한 참여로 더욱 빛난 With 플리마켓

- 유아들은 가정에서 봉사활동, 분리수거 등의 **친환경 활동을 통해 2,000원 정도의 용돈**을 모아 플리마켓에서 사용
- 유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먹거리, 악세사리 등의 물건을 준비하여 온 학부모들은 100원, 200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유아들이 즐겁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배려
- 유아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물건, 부모님의 물건 등을 다양하게 고르는 유아들도 있었음.
- 자유롭게 ‘달빛지기 학부모회’의 먹거리 존과 플리마켓이 열리는 강당을 오가며 주어진 시간동안 편안하게 마켓활동을 실시
- **OX 에코퀴즈를 통해 달빛 쿠폰**을 받은 유아들은 **달빛지기 학부모회의 먹거리 존**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학부모회에서는 ‘플리마켓’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하더라도 미술 놀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제공

• 열린 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다양한 참여의 날

- 1학기 학부모 참관수업과 2학기 달빛 스페이스 센터(참여수업)외에도 특성화 프로그램 공개주간을 열어 학부모의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움.
- 달빛 스페이스센터는 ‘미래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제에 맞게 ‘드론, 자율주행, 블랙나이트 등을 활용한 색다른 체험활동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임.

• 열린 급식실!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 모니터링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후 모니터링 기록지 및 점검표를 작성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반영**
- 검수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검수 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식재료**에 반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실 관리**에 놀랐다고 함.
-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학부모회 조끼를 입고 참여했으나, 2학기부터는 머릿수건, 마스크, 앞치마 등을 제공하여 더 위생적으로 유아들의 **추가배식**을 돕도록 하였고, 급식 모니터링 후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저마다 찬사가 이어짐.

4 추진 성과

가. 학부모-유치원 간 협력과 소통의 문화 정착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	유치원 입장
• 공립유치원의 시스템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유치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에 대한 신뢰 향상	•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지원해주시는 학부모에게 감사 •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음 • 부모역량강화로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	• 학부모의 인식제고로 유치원 교육의 신뢰 회복 • 협력과 소통의 문화조성 • 『Smile-i로 행복한 달빛유치원』의 비전 실현

나. 유아-학부모간 공감대 형성

학부모 이야기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소중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내 아이의 특성과 다른 아이들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유아 이야기

- 유아1 - “유치원에 엄마랑 같이 올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에는 달빛마켓이랑 급식실에도 왔으면 좋겠어요.”
 유아2 - “우리 엄마가 교실에 와서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친구들이 좋아해서 나도 좋았어요. 다음에는 공룡책을 읽어주러 왔으면 좋겠어요.”
 유아3 - “엄마가 달빛마켓에서 계산을 도와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달빛마켓 가는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엄마가 있어서 나랑 친구들을 도와줬거든요.”

5 활동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

가. 활동 평가 '찬란하게 빛났던 2023학년도'

“올 한해 달빛유치원의 지난 날을 회상한다면 '달빛지기 학부모회'를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달빛 스마일 서포터즈>를 통해 학부모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설정했던 과제

- 첫째, 유치원-학부모회, 학부모-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의 문화 조성
- 둘째, 학부모 스마일 서포터즈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 셋째, 열린 유치원으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를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유치원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발전하며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달빛 with 플리마켓, 학부모 연수와 워크숍, 숲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SNS 계정을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학부모회의 연간운영계획으로 세웠던 것 이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나. 향후 방향 '달빛유치원의 상징 = 달빛지기 학부모회'

“올해 달빛 서포터즈가 첫 걸음을 내딛으며 학부모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가 올해로 그치지 않도록 학부모회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적극적 홍보하는 등 더 많은 학부모들, 특히 신입생 학부모들도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운영계획 설정으로 학부모회 활동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하게 동행하는 학부모회

용인백현초등학교



1 활동 내용 요약(개요)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	밝은샘 도서관 지키미 활동/ 스프링 가든파티/ 등굣길 힐링음악회 아름다운 가을밤 백현무비데이/ 초록 우산 감사 편지 쓰기 대운동회 자원봉사 및 전교생 단체복 주문과 배부 작업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CPR 및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연수/ 학교폭력으로 내 아이 지키는 방법연수 양성평등 진로 교육 학부모연수 /학부모 학습동아리 5회차 운영/ 찾아가는 현장 원예수업(1~3차)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교육목표 실현에 기여	대의원회의를 통한 활동 내용 논의하고 학부모 밴드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전달함.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교통 캠페인을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벽시계 제작,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옐로카펫 삼각 조형물 설치 용인 시장 현장 방문시 학교주변 환경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동부 녹색 어머니회 차담회 참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급식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운영에 기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왜 이와 같은 활동을 하였는가?)

추진 배경	- 다인수 학급이지만 맞벌이 가정이 많고, 학교 교육에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u>학부모들의 관심과 신뢰를 높여야</u> 했음 - 자녀의 인성과 진로, 학습을 지도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음 - 과밀학급에 비해 학부모회 예산이 적어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을 찾으려 노력해야 했음 - 석성산과 내꽃 공원 등 학교 주변의 <u>쾌적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u>하려 함
무엇을 고민하였는 가?	- 감성·지성·꿈을 키우고자 하는 <u>학교교육의 목표 실현에 이바지</u>하기 위해, 학부모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연간활동 방향을 <u>고민</u>하고 학부모공동체의 약속도 정함 - 여건상 <u>문화예술적 체험 기회</u>가 적은 학생들이 많아서, <u>감성을 체험</u>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 학부모회가 학교와 일반 학부모들의 <u>중간역할</u>을 하며 학교 교육활동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학교에 전하여 학교교육의 발전과 자녀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떻게 활동하였는 가?	- 학부모들과의 <u>신뢰감 쌓기</u>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u>학교 주변 정비</u>를 시작으로 작은 일부터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음 -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u>중간역할</u>을 잘해서 학생들과의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무한 신뢰와 보람도 많이 받았음 - 과밀학급에 비해 <u>적은 예산</u>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에 버거웠지만, 내용이 좋은 <u>무료 행사</u>를 찾아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즐거운 경험 많이 할 수 있었음
어떻게 소통해 왔는가?	- 학부모밴드(네이버 밴드- 5년간 유지 중)와 아이엠스쿨 앱을 통해 <u>적극적으로 소통</u> - 학교 소식과 정보를 공지하며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 간에 원활한 소통하게 함 - 학부모회 활동 모습과 학부모연수 내용을 밴드를 통해 전체 학부모와 공유하고,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문화를 만들어서, 학부모회의 활동에 <u>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u>를 유도함 - 내 자식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u>학부모들의 공감대</u>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함

3 세부 추진 내용(어떻게 활동하였는가?)

가.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

활동 사례	활동 내용과 방법	비고
● 밝은샘 도서관 지키미 활동 ('23.03.02.-06.)	• 사서 교사가 없어서 학교 도서관이 폐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100일 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사서로 활동하며 <u>도서관을 전적으로 운영함</u>(대출 반납 및 학생들의 안전 관리)	
● 스프링 가든파티 ('23.04.18.)	•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 화단을 정리하고 꽃을 심으며 서로 소통하고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음 • 꽃 이름과 꽃말 카드를 직접 만들어 붙여 학생들이 알기 쉽게 함 • 직접 흙을 만지며 <u>식물 심는 체험을 통하여 생명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됨</u>	
● 등갯길 힐링 음악회 ('23.06.14.)	• 내꽃공원의 아름다운 등갯길, 리코더 앙상블의 감미로운 연주회에 오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함 • 코로나 시대와 기타 이유로 <u>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u> 학생들도 아름다운 음악 감상을 통한 <u>문화적 체험</u>을 하며 행복해함 •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아름다운 가을밤 백현무비데이 ('23.09.08.)	• 학교 옆 내꽃공원 잔디 광장에서 학생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야외 영화감상을 하며 아름다운 가을밤 추억이 되었고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 • 가족들끼리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깔고 서로 기대어 영화를 보며 가족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 하였음 • 배리어 프리 영화제로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가 되었으며,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었음	
● 대운동회 학부모 자원봉사 및 전교생 단체복 주문, 배부 작업 ('23.9.12/9.25)	대운동회 활동 코너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 다수가 <u>적극적으로 봉사함</u> 학년별 단체 티셔츠를 주문하고, 주문 사항(사이즈)에 맞게 학급별로 배부하는데 <u>적극적으로 봉사함</u> 대운동회에서 학년별로 다른 단체티셔츠를 입어 소속감과 통일감을 주는데 이바지함	
● 초록 우산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 ('23.03.27.)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전교생이 응모하여 참여하게 함	

나.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폭력으로 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연수 ('23.04.27.)	친구 관계의 갈등 관리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 방법 연수		● CPR 및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연수 ('23.05.23.)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학부모연수 실시. 교육을 토대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	---	--	--	---

●학부모 학습동아리 운영 (5회차, 23.5.24.-6.21)	학습동아리로 양성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과 진로지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함 	●양성평등 진로 교육 학부모연수 ('23.10.18.)	진로란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함께 고민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함 
●찾아가는 현장 원예 수업(1~3차) ('23.06.-07))	• 용인농협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는 사업을 신청하여, 전문 강사진이 학교로 방문수업을 하였고, 다양한 식물 재배 방법에 대해 배우고 분갈이 체험을 함 • 3차에 걸쳐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활동을 하였음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교 교육에 기여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밴드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대의원 회의를 통한 활동 내용 논의하여 학교에 전달함
●안전한 통행로 만들기	• <u>벽시계 제작,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옐로카펫 삼각 조형물 설치</u> • 대의원회를 통해 건의된 민원 사항을 학교와 협의하고, 주민센터에 건의하여 여러 가지 학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교통 캠페인 ('23.04.18.)	학생 학부모 주민들과 교통안전 중요 내용을 기억하며 안전을 지키는 약속을 함
●용인 시장 현장 방문 ('23.04.18.)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학교 주변 환경을 시찰하고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계획을 완료함
●동부 녹색 어머니회 차담회 참석	이탄희 국회의원과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 및 현장 상황 토론
●급식 모니터링단 구성	급식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경험하며 급식에 대한 신뢰감 상승

4 성과

- 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체험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음
- 나. 자녀의 인성과 진로,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았는데,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학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움이 많이 주었음
- 다. 일반 학부모들과 학교의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여, 가정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며 좋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음
- 라.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학교 주변을 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었음

5 되돌아보고 계획하며

- 가. 원활한 소통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믿고 의지하는 학부모회가 됨
- 생업에 종사하느라 학교 교육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던 것이 효과적이었음
 - 전체 학부모 밴드를 활용하여 꾸준히 학교 소식 및 정보를 안내하여 학부모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결하며 바쁜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었음
 - 여건상 문화적 체험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감성을 느끼고 학교 주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제공함
- 나. 정말 힘들었지만 한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했던 학부모회였음
-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 잘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준 학부모들이 많았음
- 다. 학교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키울 수 있는 좋은 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하는 학부모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라. 여러 학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한마음을 이루어, 학부모가 앞장서서 학교 안팎을 지키며,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 하도록 노력하는 학부모회가 되겠음

2023년, 힘든 만큼 보람도 컸던 학부모회 활동 모습

● 학부모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 교육, 모니터링 활동 모습		용인 백현초 학부모 공동체의 약속 1인 1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 아이들 앞에서 담임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 학교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하겠습니다. - 아이의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해 주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23년도 대의원회의 모습		학부모공동체의 약속	
			
학부모 도서관 운영 모습	스프링가든 파티		등곳길 힐링 음악회

				
아름다운 가을밤 백현 무비데이	전교생 단체티셔츠 주문 및 배부		대운동회때 학부모봉사 (전교생 단체티셔츠 입고 활동)	
				
초록우산공모전	안전우산 지급	학부모 학습동아리 활동 모습	양성평등 교육	급식 모니터링
				
응급처치 및 CPR 교육		찾아오는 원에 체험 교육		
●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모습				
	옐로카펫 삼각조형물		벽시계 설치	미세먼지측정기
				
교통안전 캠페인	용인시장-시찰	노담 캠페인	녹색 어머니 차담회	

창조하는 지성, 소통하는 감성, 보평중 꿈의 학부모회

보평중학교



1 우수사례 개요

가. 학부모 학교 활동 참여 확대

-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교내 축제 및 학생 자치회 행사에 자발적 참여**

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재능 교육 기부 활동

- 배움을 다시 나누는 학부모 동아리,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교육) 기부 봉사활동**
- **자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 학부모회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 **졸업생 학부모**의 고등학교 진학 **멘토링 특강**
- **학부모회 동아리활동**의 지속성 제고 위한 예산 확충 노력(학부모동아리 공모에 선정)
- 학부모회 주관 **선후배 간 교복나눔행사 진행**

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성장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 학부모회에 대한 학부모 참여도 및 만족도 증가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화된 학부모회의 학교 활동 참여와 학부모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 확립

나. 추진 목적

- 1) 학부모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

- 2) 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공동체의 3주체로서 상호 협력하여 미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부모회 역량 강화
- 3)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연계한 재능 교육 기부 활동 확대

3 세부 추진 내용

가. 학부모 학교 활동 참여 확대

활동명	활동내용
보평 플리마켓 (행사일: 5월4일 목요일)	• 학생 자치회 행사인 '보평 플리마켓'에 학부모회 참여 지원 • 학부모회에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수세미와 비즈반지를 판매 •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학생 자치회 학생들과 백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 (학교 주소지 소재) • 남은 중고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여줌 • 행사 2주 전, 전체 학부모 SNS를 통해 가정에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중고 물품을 수거하도록 홍보함. 물품을 기부한 학생에게는 교환권을 지급하여 플리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보도자료: 교육연합신문 5월16일〉 
보평제 학부모회 이벤트 -플라스틱 병뚜껑 챌린지 (행사일: 10월20일 금요일)	• 학생 자치회 축제 행사인 "보평제"에 학부모회 이벤트 행사 개최 • 탄소 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플라스틱 병뚜껑 챌린지" 이벤트로 학생들이 축제 전에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축제일에 학부모 부스에 가져오면 뽑기판 기회를 통해 간식을 제공 • 행사 한 달 전부터 교내 게시판에 포스터와 학부모 SNS를 통해 홍보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을 수 있도록 안내 • 수거된 플라스틱 병뚜껑은 성남 re100에서 생수 2리터로 교환함 〈활동사진〉 

나.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학부모 교육 및 재능 교육 기부 활동

활동명	활동내용
“보کم (보편 꿈의) 공작소” 운영 학부모회 공모 동아리	• 2023년 4월 초 학부모회 임원회의를 통해 동아리 주제를 선정하여 성남시 교육지원청 공모 학부모동아리에 선정 • 마크라메 공예를 주제로 월1회 연4회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수시 모임에서는 동아리 회원들 간의 자체 심화 학습으로 마크라메 매듭팔찌를 만들어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 • 학교 축제에 마크라메 작품 전시 및 마크라메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교직원 대상 마크라메 매듭 팔찌 판매하여 기부금 마련 • 본교 두드림학교 정서지원프로그램에 학부모 명예교사로 학생12명 지도 •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백현동)에 초등학교 10명 대상으로 마크라메 걱정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지원 • 마크라메 매듭 팔찌 판매 수익금을 다함께 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부 • 마크라메 매듭 팔찌 100개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 • 동아리 계획서를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간 계획 수립 시 수업, 활동, 예산, 지역사회 재능 교육 기부 등을 사전 편성하고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 및 협의 〈활동사진〉 
학부모 봉사단 노인 복지관 방문 (행사일: 6월17일 토요일)	•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도우미 봉사활동 •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함께한 봉사활동으로 본교 1학년 학생 8명, 학부모 11명 참여 •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본교 학생 5명 참여 〈활동사진〉 

다. 학부모회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활동명	활동내용
학부모회 진로·진학 특강 (1학기: 6월27일 화요일 2학기: 9월12일 화요일)	• 학부모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로 진로 진학 특강을 개최 • 1학기에는 입시제도와 고교유형별 유불리에 따른 분당지역 고교 선택 전략을 주제로 강사 초빙 및 특강 진행 • 2학기에는 졸업생 학부모 진학 진로 멘토링 진행 • 본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관심 고등학교 6개를 선정 • 해당 학교에 진학한 졸업생 학부모님들을 초빙하여 “고등학교 실제로 가보니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논의 • 올해 2회 차로 학부모회 자치 문화로 자리매김 〈활동사진〉 
학부모회 교복나눔행사 (선배기증행사: 10월25,26일 후배판매행사: 11월1,2일)	• 학부모회에서 3학년 대상으로 교복 수거하여 1, 2학년에게 판매 • 선배들은 교복을 기부하고 후배들은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교복을 구매하여 자원 재활용 장려 및 선순환의 의미 인식 • 판매 수익금은 전액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활동사진〉 

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성장

활동명	활동내용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육 3주체) -매년 12월 첫주 금요일 개최-	• 대토론회 전에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위원회를 개최 • 학생, 교사와 함께 학부모 20명이 참여하여 토론 후 발표 • 주요 토론 내용은 기본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노력,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존중, 성장중심/과정중심 평가 진행 상황과 평가의 방향 등

4 성과

가.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확대는 학교에 대한 이해도 신장 및 교육 주체로서 자부심 확보에 기여
나. 학부모 교육이 배움에서 나눔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삶을 실천

-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봉사함으로써 부모 모델링 효과 제고
- 지역 사회 아동과 어른들에 대한 봉사 활동 참여 촉진

다. 학부모회의 문화 정착

- 학부모회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지속력 배양

라.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인 협력 및 성장

- 올해 초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예산이 삭감되어 동아리 예산 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부모회 동아리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

5 활동 평가(되돌아보기) 및 향후 방향(계획)

가. 활동 되돌아보기

- 학부모회 행사가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다 보니 교사와 학생들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증가
- 학부모회 자치활동 기반과 여건 조성
 - 학기 초 학부모회 예산 편성부터 학교와 협의하였고 행사마다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모회 자치 강화
- 학부모회가 주도하는 학부모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 참여율이 높아지고 학부모회에 대한 신뢰도 상승
-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 기부 활동으로 확산

나. 향후 계획 : 교육 3주체의 협업과 소통 역량 강화

1) 학부모회 자치 역량 강화 및 내부 소통

- 학부모 동아리 및 학부모회 연간 활동 확대를 위해 차년도 학부모회 예산 확대 지원 및 학부모 임원 자치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행사 전, 후 임원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년도 학부모회의 참고자료로 축적

2) 학생 자치회 - 학부모회 연합활동 강화

- 학부모회가 축제,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에 학생 자치회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

함께 날자, 화성나래학교

화성나래학교



1 화성 나래학교 학부모 교육 목 개요

가. 2023학년도 학교 비전 및 교육 목표

학교 비전: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



교육 목표: 배움을 즐기며 함께 성장하는 학생



학생	교사	학부모
꿈꾸며 배우는 학생	전문성을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사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부모
• 자연과 마을에서 배우기 • 문화, 예술 활동 참여하기 • 안전, 건강생활 익히기 • 다양한 진로활동 참여하기	• 수업 전문성 향상 • 개방적 교실과 수업 나눔 운영 • 교직원 자율동아리 운영 • 과정, 부서별 공유와 협력	• 교육활동 참여와 협력 • 자율적인 동아리 운영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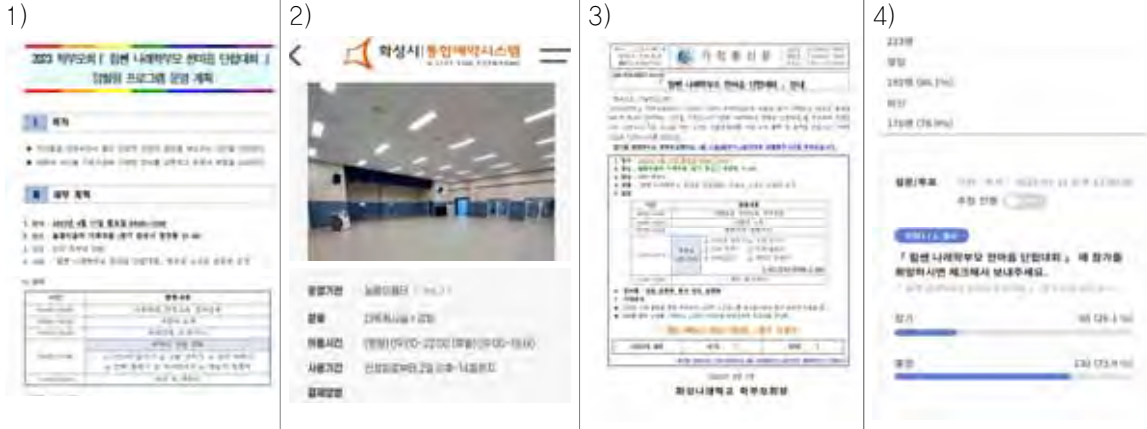
2 학부모회 운영 목적

목표	세부 실천 과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부모	
• 교육활동 참여와 협력	대의원회 활동, 급식 모니터링, 학교 미용 봉사 등
• 자율적인 동아리 운영	볼링B.C. 동아리, 힐링 동아리 등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미용 봉사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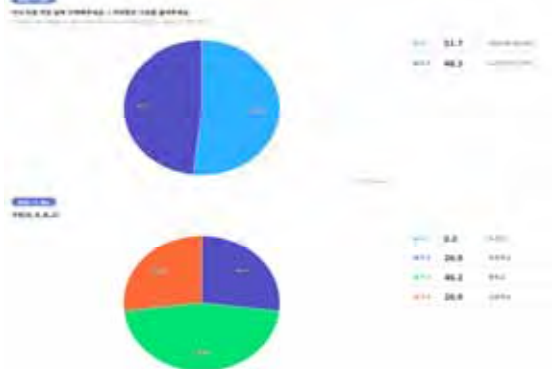
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디자인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교육 공동체의 주인의식 제고
나. e알리미,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
다. 가족지원, 학부모 소통, 학생의 신변자립,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부모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

3 세부 추진 내용

가. 제1회 학부모회 단합대회 개최

목적	자녀를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학부모 소통의 기회 마련		
일시	2023.4.17.		
대상	본교 학부모		
방법	1) 4.3~4.4	학부모회 임원회의를 통하여 학부모회 단합대회 계획안 수립	
	2) 4.4~4.10	단합대회 날짜, 시간, 장소, 레크리에이션 강사 섭외	
	3) 4.7.~4.11	가정통신문 E알리미를 통하여 참가자 신청 안내	
	4) 4.4~4.12	단합대회에 필요한 물품 준비	
	5) 4.17	참가자 명단 정리 및 진행	
	1)	2)	3) 4)
			
내용	• 약 2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19가 점차 마무리되면서 소통의 부재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되었음 • 학교행사 참여와 직접 소통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정과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소통을 못 하는 학부모들을 끌어내기 위해 부담이 적은 단체 활동을 선택하여 계획하게 되었음 •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e알리미, 학부모 동아리, 대의원회 회의, 임원 회의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의 절차를 거침		
결과	 • 본교 학부모 약 55명이 참여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쌓이고 분출되지 못한 감정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정서 회복에 도움을 줌		

나. 학부모회 미용 파티 운영

목적	미용 모의 훈련을 통하여 미용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얻고, 학생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함양
기간	2023.05.~ 2023.12. 매월 둘째주(목), 넷째주(화), 10시~12시, 본관 2층 미용실
대상	본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방법	1) 4월 학부모 미용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마련 2) 월 초 또는 월 말, e알리미를 통하여 미용 신청자를 받음 3)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담임선생님들께 안내함 4) 둘째 주(목), 넷째 주(화) 미용 봉사를 실시함 5) 10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실시하며, 학생 1명당 미용사 1명, 학부모 봉사자 3명이 함께 진행됨 1)  2) 
내용	•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요일에 미용 강사와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통한 미용 파티를 운영함 • 학부모 봉사자와 미용사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여 봉사시간을 받음
결과 (성과)	    • 매월 30명~40명 정도의 신청을 받아 미용을 진행함 •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미용실 방문 자체의 어려움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소리의 예민함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줌 • 월 1회 이상 미용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청결에 도움을 주었음 • 외부 강사와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통이 활발해짐

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 운영

목적	학부모의 친목과 단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와 새로운 활력을 충전	
기간	2023.04.~2023.12. 매월, 매주 동아리별로 진행	
대상	본교 학부모 중 학부모 동아리 신청자	
방법	1) 3월 초~ 4월 초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하여 동아리 신청받음 2) 매월, 매주 동아리 위원장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함	
내용 및 결과 (성과)	볼링 동아리B.C.	힐링 동아리
		
	동탄 근처 볼링장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볼링 코칭의 지원받음	자유롭게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돌봄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눔
	• 자녀를 키우며 표출되지 못한 에너지를 분출하며 함께 땀을 흘리며 공감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형성됨 • 현재 50여 명의 학부모님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아리 운영장을 중심으로 회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일정을 계획하고 운영함	•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자는 취지로 형성됨 • 현재 40여 명의 학부모님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아리 운영장을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등산 및 산책 등 자유롭고 자율적인 정기 모임을 함
	• 학부모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실현하여 생활 피로도를 낮추고 긍정적 에너지와 활력을 높임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회의 필요성을 확인함	

4 성과

- 가. 학부모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졌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나. 본교 학생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부모의 재능기부와 외부 강사의 도움을 통하여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녀의 학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음
- 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동아리 활동을 구성하고 협력이 바탕이 되는 단합 활동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참여율도 높아짐

활동 영역	활동 시간	참가 인원	성과(결과)
학부모 단합대회	4.17 (9시~ 12시)	약 55명	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신체적 감정 공유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찾음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함
학부모 미용봉사	매월 화, 목 (10시~ 12시)	매월 30~40명	① [5.23, 6.15, 6.27, 7.13, 10.19, 10.24, 11.16, 11.28, 12.14, 12.26] 2023학년도 미용 봉사를 10회기 진행하였으며 꾸준히 미용 신청자가 늘어남 ② 교사와 학부모, 미용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었고, 학생의 상태를 자세하게 공유하여 학생이 미용 활동에 빠르게 적응함 ③ 매월 1회 이상 학생들의 개인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미용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반응함
학부모 동아리	매월 금요일 (자율운영)	자율 참여	① 학부모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부모회의 필요성을 확립함 ② 에너지 분출 창고로 학부모의 긍정적인 에너지 형성에 도움을 줌 ③ 학부모와 학교(학생)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함

5 활동 평가(되돌아보기) 및 향후 방향(계획)

- 가. 전체인원 비율에 비해 참여 인원 비율이 낮아 많은 인원이 시간을 내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 나. 학부모의 취미를 조사하여 학부모 교육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 다. 능동적인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창구로 홍보를 강화
- 라. 학년별 학부모 테마 체험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활동에 적용 필요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
인 쇄 디자인팀킨 (031)893-8315~7
